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2월 13일(음력 1월 7일) 수요일 (주간) 제666 호

“가정생활과 수행은 하나”

‘올바른 가족 신행문화’ 만들기 앞장서 온 박용진 거사

집안이 바로 절이다. 가족이 서로 도반이고 생활 자체가 신행이고 수행이다. 삶과 신행이 하나인 가족이 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박용진(부산 아카데미 학원 원장·42) 거사 가족. 박 거사가 지도법사고 부인 김금영씨(40)를 비롯해 대청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들 박석원(6년·12), 딸 박해인(3년·10), 둘째아들 박도원(1년·8)이 신도인 셈이다.

아침 6시, 박 거사 가족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컴퓨터 앞에 옹기종기 앉아 인터넷 다음 카페에 개설된 무비 스님의 ‘염화실’ 방으로 들어가 경전공부를 하는 일이다.

7년째 계속된 내공으로 큰 아들 석원군은 사이버 불교대학을 최연소로 졸업하는 영예를 얻어 주변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석원군은 최근 합류한 동생들과 함께 저녁때는 잠자리에 들기 전 108배와 30분 참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석원군은 “집에서 참선을 하면서부터 집중력도 좋아져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아무리 오래 앉아 공부를 해도 싫증이 안나 학업 능률이 많이 오른다”고 즐거워했다.

석원군은 영어와 한자로 된 <금강경>을 보며 잘못된 풀이와 오자도 잡아 낼 정도로 실력이 쟁쟁하다.

대체 무엇이 이 어린 학생을 불교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했을까? 말로만이 아니라 신행생활을 몸소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행한 아버지 박용진 거사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박 거사는 “매일 아침 밥 먹듯 자연스러운 일인데 새삼스럽게 취재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그동안 한사코 취재를 거절했었다. 결국 2월 3일 부산 기장에 있는 그의 집을 급습(?)해 어렵게 가족 신행을 엿볼 수 있었다.

“20대 중반에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성철 스님을 만나러 백련암을



찾아 3000배를 하고 100일 법문을 듣고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 때 성철 스님께서는 불자라면 절에서만 절과 참선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 집에서도 항상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 거사가 가족들과 신행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박 거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불법을 만날 수 있도록 매일 힘을 쏟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주치게 될 인생의 위기 때마다 시간 낭비 없이 정진하며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소신도 덧붙였다.

아버지로서 인생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돈과 명예보다 불법의 진리를 통해 자신의 인생들을 당당하게 만들어갈 지혜를 몰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7년전부터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먼저 실천을 통해 ‘수행생활’을 보여줬다. 그런 성실한 모습이 어린 자녀들의 눈과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처음엔 호기심에서 출발한 신행생활이 이젠 자발적인 가족 법회로 승화됐다. 학원을 운영중인 박 거사는 요즘도 하루 평균 5시간 동안 참선과 절수행 및 경전 공부를 한다.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결코 따르지 않는다”는 박 거사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합니다. 하지만 수행에 나이가 있습니까? 나이를 고려하면 언제 수행 합니까? 그렇다고 처음부터 108배나 3000배를 강요하고 힘들게 끌고 온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10배, 20배, 그리고 참선 시간도 10분 20분 늘렸지요. 지난해에는 해인사 백련암에 가서 3000배까지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기특하게도 한 번도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잘했고 돌아와서는 108배 정도는 정말 쉽게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매일 마다 꾸준히 하며 점차 근기에 맞춰 늘려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거사는 신행생활을 함께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보았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하심하는 습관이 길러지면서 형제간, 가족간의 우애와 사랑이 깊어짐을 느꼈다. 참선을 통해 집중력이 향상되다보니 독서 시간도 길어져 자녀 모두 공부에 취미를 붙였다. 그 결과 과외공부 한 번 시키지 않았는데도 성적이 많이 향상됐다.

박 거사는 “영어 등 사교육을 위해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며 부모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 할지 모르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신행 생활 속에선 학원서도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며 “한 인간이 자라고 성장하는 동안 인성에 대한 대부분의 영향을 가족에게서 받는 만큼 올바른 가정 신행 문화 속에서 불법에 의지하며 사는 모습은 다음 세대를 이어 갈 자녀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하성미 기자, 삽화=김홍인 화백



설날 어르신들의 공동차례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는 2월 5일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공동차례지내기’를 마련했다. 직접 차례를 준비하기 어려운 2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된 이날 행사는 관장 일문 스님의 축문 낭독을 시작으로 진설, 분향강신, 참식, 진찬, 헌다, 삽시, 사신, 철시반복, 사신 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차례가 끝난 후 자원봉사자와 복지센터 직원 등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올렸다. 글/사진 · 박재완 기자

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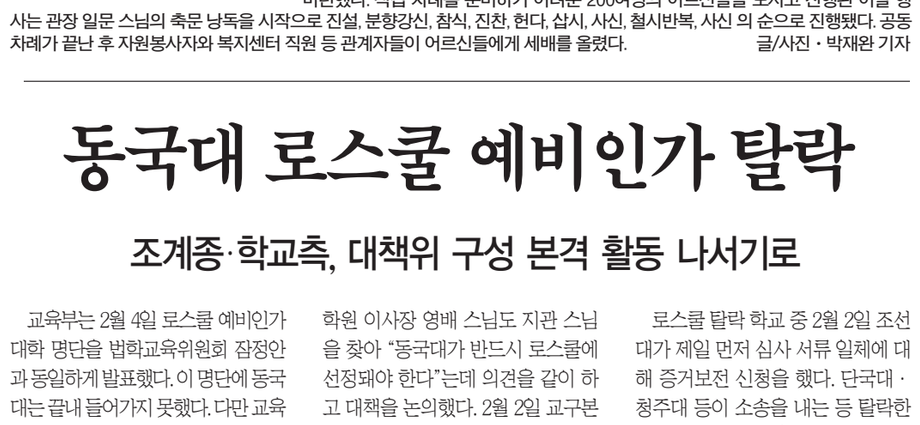
조계종·학교측, 대책위 구성 본격 활동 나서기로

교육부는 2월 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명단을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과 동일하게 발표했다. 이 명단에 동국대는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다만 교육부가 예비인가시 배제된 지역의 대학에 추가선정 여지를 둠에 따라 동국대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교계는 지난 1월 29일 법학교육위원회 예비선정안 발표 이후, 조계종단, 동국대 등 사부대중이 혼연일체가 돼 로스쿨 재선정을 위해 힘써왔다.

1월 31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한 마친 오영교 총장이 지관 스님(총무원장)을 찾아가 지역안배 문제 등 동국대가 부당하게 탈락한 경위를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2월 1일 동국대학원 이사장 영배 스님도 지관 스님을 찾아 “동국대가 반드시 로스쿨에 선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2월 2일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이 모인 긴급 연석회의가 열렸다. 긴급 연석회의 후 발표된 결의문에서는 ▲교육부총리 사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로스쿨 정원 제한 폐지 ▲로스쿨 인가 차기정부 이월 등을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 중앙신도회, 동국대 등이 참여한 (가칭)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대책위는 2월 15일 첫 모임을 갖고 활동할 계획이다.

로스쿨 탈락 학교 중 2월 2일 조선대가 제일 먼저 심사 서류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단국대 · 청주대 등이 소송을 내는 등 탈락한 학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 교육부와 법교위에 재심의 촉구 항의공문을 전달한 것 말고는 동국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순열 부총장(동국대)은 “2월 5일 증거보전 신청을 시작으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설 연휴가 끝난 뒤 시위 등도 계획돼 있다. 여론 환기용 대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허허당의 세상만사

■ 바람의 아들

이승과 저승이 둘이라면
나는 기웃 기웃 홀로 걷는
두 발 나그네.
이승과 저승이 하나라면
나는 폴폴 홀로 걷는
외발 나그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독자님 가정에 부처님 가피 가득하소서
설 연휴 관계로 금주 신문 20면 발행합니다

본지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필자 이우상 교수
이집트의 고대왕릉 ‘피라미드’를 읽다 ▶14~1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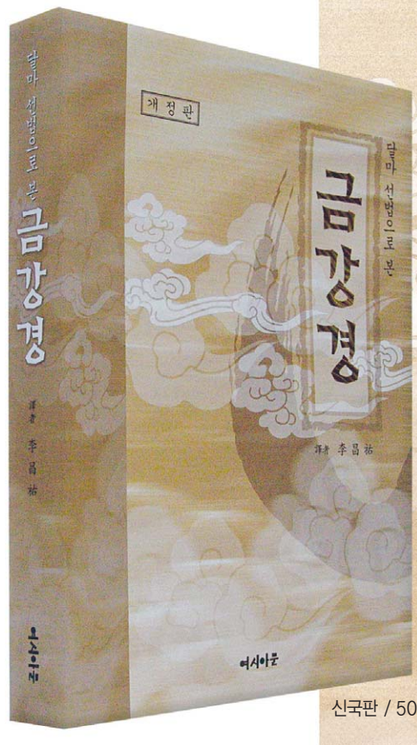
달마 선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스승을 찾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 형식으로 풀어놓았다.

진리는 보편 타당성에 바탕하므로 간명하다
불법 역시 대신 삶을 살아 줄 수 없다는
진리에 바탕하여 주체성을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행이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고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찾아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으므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일신을 위하는 유위법은 100년을 닦아도 죽으면 함께 없어지지만 마음을 구하는 무위법은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어도 세세생생 없어지지 않는 천하보물이 되므로 마음 닦는 길을 「금강경」이라 한다. 불교의 주체는 육신이 아닌 마음이고, 마음은 생사도, 남녀도, 더럽다, 좋다도 없이 온갖 모습으로 윤회할 뿐 불생불멸이므로 영원을 살기 위해 마음을 구함에 있다. 그러나 범부는 나무의 뿌리는 인정하면서도 육신의 뿌리인 마음은 없다 하고 보이는 일신만 유일한 자신으로 알고 부처를 구하느라 절하고 진언, 기도, 염불과 경전을 읽는다. 이 같은 다문(多聞)을 깨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달마선법으로 본
개정판
금강경



신국판 / 509페이지 / 12,000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6층 주문전화 02)2004-8237

심의기준·결과 달라… "불공정 평가"

☑ 동국대 '로스쿨 탈락' 문제점 진단

2월 4일.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확정발표에 불교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월 29일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교위)의 잠정안 발표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단과 동국대, 재단이 전력을 다해 동국대 로스쿨 인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힌 후라 충격은 더 컸다. 동국대의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무엇이 문제일까?

#법교위 평가 공정하지 못했다

동국대는 사법시험합격자 수,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양대평가지표 순위에 반하는 결과와 수도권 내의 지역적 재배당, 구조개혁 우수대학에 대한 역차별 등을 법교위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동국대가 공개한 평가자료에 따르면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에 대한 총배점 15점 중 6점이상을 획득한 대학 가운데 동국대만 탈락했다. 또 구조개혁추진실적에 대한 총배점 5점 중 5점 만점을 받은 대학 중에서도 동국대만 탈락했다.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과 구조개혁추진실적에 배점된 총 20점 중 동국대는 11점을 얻었다. 이는 전국순위 11위, 서울권역 대학만으로도 9위에 해당한다. 서강대, 한국외대, 건국대, 인하대, 서울시립대 등은 6~9점의 낮은 점수로 서울권역에서만 10~14위인데도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다. 따라서 주된 심사기준으로 알려진 사법고시와 구조개혁 실적이 우수한 동국대가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동국대의 주장이다.

경기와 강원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은 것도 잘못이다. 고등법원 관할권역에 따른 지역 분할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자의적·정치적으로 지역 구분이 적용됐다. 교육부의 확정발표가 미뤄진 것은 청와대와 협의 때문이었다. 협의내용은 경남 지역 등 일부 지역이 지역안배 원칙에 어긋났다는 것으로 정부의 지역안배 원칙은 확고하다. 하지만 "인재양성에 지역균형 발전이론이 합당한가"하는 의문을 던지는 전문가들이 많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라도 변호사, 경상도 변호사 등 지역 변호사 양성 보다는 불교계 변호사, 문화재 전문 변호사, 영화계 전문 변호사 등 사회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 변호사 양성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동국대 추가선정 여지는 있나

교육부는 예비인가 확정 발표에서 추가선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인가대학 중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 조정 시, 혹은 법 개정에 따라 총 입학정원이 증가할 경우를 추가선정 조건으로 밝혔다. 다만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대상은 (탈락한 전체 대학이 아니라) 경남 등 예비인가시 배제된 지역의 대학이다.

방희선 학장(동국대 법과대)은 교육부 발표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9월전 추가선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끝까지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만 이미 끝난 것 아니냐"는 체념 섞인 전망도 내놓는다.

추가선정이 가능하더라도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한 불자는 "혹여 차기에 선정되도 1차에 탈락한 오명에 추락된 2000만 불자의 자존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국대도 2류 라는 인식을 쉽게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교계 위기관리 능력 부족 지적도

오영교 총장(동국대)은 "200억 상당의 투자와 20여명 이상의 교원 확보 등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신정아 사건의 후폭풍으로 역차별을 받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동국대의 한 관계자는 "200억원의 투자로 외형적 모습은 갖췄지만 오영교 총장이 총장협의회 등에 불출석한 것은 문제 있는 처사였다. 어찌 보면 동국대 탈락은 예견돼 있던 일"이라고 푸념했다.

교계의 대응이 늦고 무성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관 스님(총무원장)과 영배 스님(동국학원 이사장) 등 종단과 재단이 긴급 회동을 갖고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바삐 나섰지만 이미 법교위의 잠정안 발표가 있은 1월 29일 이후의 일이었다. 2월 5일 현재도 다른 로스쿨 탈락 대학들은 법원에 심사서류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소송서류를 접수시키는 등 법적조치와 더불어 교직원과 학생들이 항의시위를 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교계의 움직임은 이상하리만치 점잖다. 9월 로스쿨 추가선정 시한을 앞두고 어떤 해법이 있을지 2000만 불자들이 주목한다. 조동섭 기자

인천불교범종단聯 창립기념 법회

무원·화응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 동참

인천불교범종단연합회(공동대표 무원 · 화응)는 2월 3일 인천 황룡사 3층 보문전에서 '창립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상임공동대표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부장 · 황룡사 주지)은 이 자리에서 ▲낙후된 인천 지역 교세 발전 위해 불퇴전의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종파를 초월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소외받는 이웃을 보살피는 자비보살이 된다 ▲과거 불화와 불신의 아픈 상처를 거울삼아 이타행과 대승보살도 실천에 매진해 나간다 등을 골자로 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탄공 스님(법륜종 종정)은 "오늘의 연합회 창립이 지난시절 반목과 갈등, 분열과 대립이라는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 나가는 대장정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창립법회에는 공동대표인 무원 · 화응 스님을 비롯해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이원복 의원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김주일 기자



인천불교범종단연합회 창립식이 2월 3일 인천 황룡사 보문전에서 봉행됐다.

"신정아 학력조회 실수 유감"

예일대 총장 동국대에 사과

신정아 허위학력 조회와 관련해 미국 예일대 리차드 레빈(Richard C. Levin) 총장이 1월 31일 동국대 오영교 총장에게 공식 사과 서한문을 보내왔다.

이 서한문에서 리차드 레빈 총장은 2005년과 2007년에 동국대가 요청한 학력조회에 대해 예일대가 실수한 행정적 착오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학위검증시스템의 구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한문은 예일대학의 실수로 신정아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주일 기자

범어사동산문도회 문장 착좌식

능가 스님 "위계 질서 확립으로 화합 정진을"

범어사동산문도회(이하 동산문도회)가 문장착좌식을 열고 화합과 투명한 경영으로 위상을 회복할 것을 주창했다.

동산문도회는 1월 31일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문장(門長)을 모시는 '문장착좌식'을 봉행했다. 착좌식에서 동산문도회 문장 능가 스님은 "동산 스님의 한국불교 정화운동 정신을 명심하고 위계질서 확립과 투명한 재정관리"에 대해 천명하고 화합을 위해 정진할 것을 주장했다.

동산문도회는 2002년 6월 18일 '범어사 동산문도회'를 결성, 능가 스님을 원로 의장으로 모시고 2002년 8월 30일 동산문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가 스님을 문장으로 추대했다. 동산문도회는 "그동안 착좌식을 미뤄왔는데 동산대종사 문중의 화합, 범어사의 미래발전 그리고 부산시민의 안녕을 위하고 국태민안을 위하는 큰마음에서 착좌식을 거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능가 스님은 "범어사 승려들이 개교 이래 승가가 지켜야 하는 삼대 원칙, 동산 스님의 불교정화운동 정신, 위계질서, 투명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특히 사찰운영에 있어서 사리사욕과 해괴하고 방자한 기풍이 횡행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모두 함께 참회하고 화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능가 스님은 동산문도회의 화합과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동산 스님의 한국불교정화정신을 깊이 새겨 명심하고 위계질서를 바로잡을 것과 공개적으로 범어사의 공영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동산문도회 문장 능가 스님은 1950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 1957년 중앙종회 부의장에 선임되고 1960년 불국사 주지 임명, 1962년 조계사 주지 임명, 1970년 범어사 주지로 취임, 세계불교지도자대회 대회장 등 여러 중요한 요직을 역임했다.

문장착좌식에는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동산문도회 부문장 정관 스님,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원로회의 수석부회장 지혜 스님, 해월정사 회주 천제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강주 무비 스님, 유나 인각 스님, 율원장 지오 스님, 범어사 부주지 계전 스님 등 동산문도회 스님 및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첫 발' 딛은 대운하 도보순례

순례기간은 5월 22일까지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 원불교 · 성공회 등 5대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 대운하 건설 예정지를 2월 12일부터 도보로 순례한다.

종교환경회의는 1월 3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모임을 갖고 순례단 명칭을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로 정하고, 순례기간을 2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로 확정했다.

순례단은 개신교 이필완 목사를 단장으로 불교계에서는 수경(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 도법(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 연관(봉암사 수좌) 스님, 원불교에는 홍현두 교무(천지보은회 홍보실장), 성공회 최상석 신부(성공회환경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순례구간은 한강하구를 시작으로 남한강, 문경새재, 낙동강, 부산을 거쳐 호남운하 예정지인 목포로 이동해 영산강 줄기를 따라 걷게 된다. 이후 다시 충청운하 예정지인 금강 지역을 순례한 후 서울로 돌아온다. 순례기간 동안에는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마당 ▲생명평화 문화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2월 19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생명의 강 지키기 불교행동' 출범식을 갖는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지사 : (062)268-150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 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2008학년도 신입생모집 안내(보우승가대학)

본교는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사찰운영과 신도포교에 꼭 필요한 실제적 이론과 기초의식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2년제 교육기관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그에 준하는 자격 또는 종단승려의 추천에 의하여 누구나 입학가능하며 기초에서 부터 전문으로 완성해드리는 보우승가대학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입학안내

◆모집학과 및 정원
· 범패학과 30명 / · 불교문화예술학과 30명 / · 전통강원반 40명/ · 교임교육과 30명
◆응모자격 : 신입생 : 승려 및 재가자
· 편입생 : 지원학과에 맞는 실력을 갖춘 자(2학년으로 편입가능)
· 전통강원반 : 일반불교교양대학 이수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 이수자
· 교임교육과 : 희망자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원서교부 및 접수
· 장소 : 본교 교학처 · 기간 : 2월 1일 ~ 2월 15일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본교 홈페이지http://bowoosamgha.com 에서 다운 받거나 팩스 747-9290로 제출.
2)주민등록초본 1부
3)반명함판 사진 3매
4)전 형 료 5만원

※기숙사 완비(숙식제공)
1인 1실 : 월 25만원 / 2인 1실 : 월 25만원

2. 입학전형일 : 2008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
3. 합격자발표 : 2008년 2월 23일(토)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http://bowoosamgha.com)게재
4. 교 과 목

학 과	목 표	교 과 목
범패학과	의식의 기초인 목탁 잡는 법 에서부터 49재의식까지 봉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의례를 체계적으로 학습	기초불교교리. 상주권공. 호적
불교문화 예술학과	불교교리 및 법당관리.사찰운영에 꼭 필요한 모든장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함	기초불교교리.재설비 (도량장엄.고임새.지화.서예등).생활역학
전통강원반	선암사 강주를 역임하신 운범스님께서 경전을 전통 강원식으로 집중 교육하는 전문자과정임	사미.사집과 : 치문.도서.선요.서장.절요 사 교 과 : 능엄경.기신론.금강경.원각경
교임교육과	6개월 과정으로 교임 또는 승려의 권속이나 신도회간부. 사찰운영의 초보자들에게 승려를 보좌하고 준 성직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위상을 정립토록 교육함	기초불교교리.불교의식.생활역학. 사찰경영학.재설비(도량장엄.지화.고임새. 금은전).습의학.다도.꽃꽂이.참선실수

연락처 : 02-763-5213 팩스 : 02-747-9290

울산 원각선원 ISO인증 획득

〈국제품질경영시스템〉

'노인복지시설 매뉴얼 표준화' 서비스 국제적 인정 받아

지역사회의 불교사회복지서비스가 국제 기준을 충족시켰다. 울산시 울주군 구미리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이사장 보연)이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00) 인증을 획득했다. 원각선원은 2월 1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연화노인요양원 3층 강당에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인증서 수여식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 등으로 진행됐다.

원각선원이 이번에 인증 받은 것은 '노인복지시설 매뉴얼 표준화'다. 이는 복지서비스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식사와 운동, 여가 등 노인들의 세세한 생활까지 매뉴얼을 통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매뉴얼의 정착으로 산발적 서비스로 인해 어르신들이 느끼는 혼란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각선원은 1977년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양로원 · 연화노인요양원 · 연화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주거 · 의료복지시설 3곳과 재가노인복지센터 2곳, 모자복지시설 1곳 등 총 6곳의 자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번 인증서 획득으로 원각선원은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펼쳐온 노인복지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은 물론이고 불교사회복지의 지역사회 위상도 높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원각선원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불교사회복지 정신에 입각,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요구사항을 제대로 만족시키면서 맞춤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지역에서 불교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여타의 복지단체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찰 복지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노하우 및 자원 축적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이사장 보연 스님은 "이번 인증으로 서비스를 좀 더 체계화할 수 있게 된 만큼, 시설 예절교육부터 다시 실시해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Tip ISO9001/2000이란?

원각선원이 받은 품질경영시스템은 유엔 산하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기술발전을 위한 정보, 지식의 국제간 교류촉진을 목적으로 제정한 국제규격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국내에서는 산업표준화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 제3자인 인증기관이 고객의 입장에서 조직의 능력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해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증해야 한다. 규정된 요구사항은 고객의 요구사항, 법규를 포함한 규제요구사항, 조직 자체 요구사항, 규격의 요구사항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 이사장 보연 스님(오른쪽)이 한국품질보증원 송종철 원장으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불교회 창립법회

대전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태경화)가 2월 1일 대전 시민의 안녕과 대전경찰의 발전을 기원하는 '대전지방경찰청 불교회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전지방경찰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비구니청림회장 영진 스님을 비롯해 경찰서 불자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총 스님은 "경불회 회원들은 지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불자 경찰이 되어 달라"며 "앞으로 경불회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경승에는 철웅 스님(고산사 주지)과 우석 스님(지장사 주지), 북천 스님(구암사 주지)이 위촉됐다. 경불회 부회장은 한광림, 김옥현씨가, 총무는 서동혁씨가 각각 맡게 된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성사 티베트 전통의식 봉행

새해를 맞아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티베트불교 전통의식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옥천 대성사(주지 혜췸)는 2월 21일 오전 10시 대성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티베트 스님들을 초청해 무자년 정월 대보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불교의식과 무자년 인등 불 밝히기 및 삼재풀이 기도를 한국과 티베트불교 전통의식으로 봉행한다. 문화공연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043)732-5560

나눔의 집 '피스로드' 개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에서 2월 16~22일 '제8회 피스로드(Peace Load)'를 연다.

피스로드는 매년 2차례 펼쳐지는 한국과 일본 양국 대학생 및 일반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피스로드는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참석, 서대문 형무소 방문, 나눔의집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등으로 꾸려진다.

한편 피스로드는 지난해 12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뽑은 '2007 공공시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031)768-0064

김강진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거창 '삶의 쉼터' 수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또 다시 시설수탁에 성공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월 4일 "경남 거창군에 건립된 사회복지시설 '삶의 쉼터'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시설은 총 110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이번에 수탁한 '삶의 쉼터'는 거창읍 송정리에 지상1층 지상3층 2개동으로 지어진 복합시설로 노인 · 여성시설, 장애인시설 통합시설이다. 총 공사비 120억, 1600평에 달하는 이 시설은 앞으로 거창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중점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시설수탁은 또한 그 동안 서부경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불교사회복지계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삶의 쉼터'의 지원사찰은 거창과 가장 가까운 교구본사인 합천 해인사로 결정됐다.

김강진 기자

"태안 기름제거 봉사 함께해요"

군산 동국사신도회

군산 동국사(주지 종상)는 2월 1일 신도 50명과 함께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현장을 찾아 방제 작업을 펼쳤다.

군산 비응항에서 선박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연도에 도착한 동국사 신도들은 일반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연도 선착장 반대편의 절벽아래로 밧줄을 타고 이동해 돌에 붙어 있는 타르 덩어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신도들을 인솔하고 봉사에 참여한 동국사 총무 종걸 스님은 "언론에서 보았던 것보다 기름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집중되는 반면 군산 도서지역의 방제 작업은 몇 년이 걸려도 복구가 힘들다"며 지역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면 군산시에서 배편과 여행자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063)451-1368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동국사 신도들은 2월 1일 연도선착장 인근에서 타르 제거작업을 펼쳤다.

참여불교리더스 포럼 강좌

불교사상을 시대언어로 재조명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 지도자를 꿈꾸는 재가불자를 위해 참여불교리더스 포럼이 준비한 강좌는 매월 한차례씩 열린다. 사회전반의 여론주도층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강좌는 우리함께회관 2층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매월 첫째 화요일 오후 7시 시작된다.

강의는 ▲3월 4일 윤명철 교수(동국대)의 '광개토대왕을 모델로 삼은 21세기 우리 민족의 세계질서 재편 전략' ▲4월 1일 정기용 건축가(성균관대 석좌교수)의 '더불어 사는 삶의 건축과 연기적 세계' ▲5월 6일 구혜경 방송작가(<아프리카 초원학교> 저자)의 '탄자니아의 사람 · 자연 ·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02)2278-3417

조동섭 기자

'자비 넘치는 설 명절'

어려운 이웃에 생필품 전달 등 행사 잇따라

설날을 맞아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사장 성운)은 2월 1일, 법인 산하 17개시설과 삼천사가 참여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은 쌀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120여 세대에 전달했다. 인덕원은 이들에게 떡국용 떡, 내의, 양말 등도 함께 전달했다.

부산 부처님 마을(주지 효범)은 1월 30일 해운대구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해 모은 쌀 10kg 200포 중 170포를 해운대구청에서 전달했다. 부처님 마을은 3년 동안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해 도시락 봉사와 산사 순례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길상사(주지 자인)는 1월 30일 강서구청에 쌀 10kg 100포를 전달했고,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자비알뜰 바자회를 1월 31일에 개최해 설 음식과 생필품 판매 수익금을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했다.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원정)는 1월 31일 마산시청 6층 강당에서 제18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열고 성금 및 생필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통도사(주지 정우)는 지역 양로원과 자비원 및 선원에 쌀을 전달했다. 통도사는 2월 1일 양산시청에서 경로당 229개에 지급할 쌀 각 20kg씩을 전달한데 이어 양산 하북면 일대 경로당 24개에는 설날 떡 수공비 10만원과 쌀 20kg씩을 지원했다.

김강진 · 하성미 기자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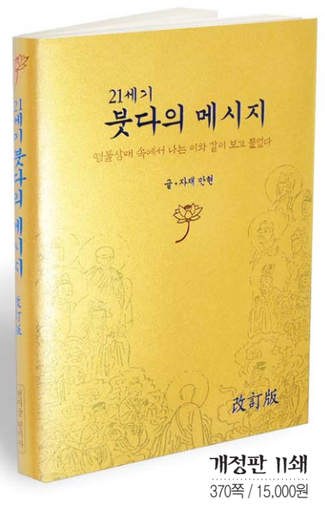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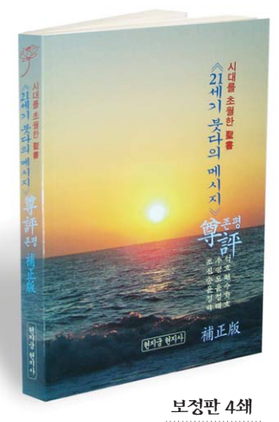
절찬리 판매중

12쇄 발행!! 개정판 11쇄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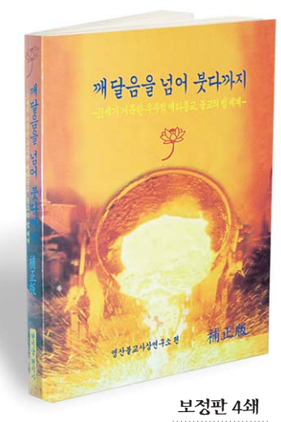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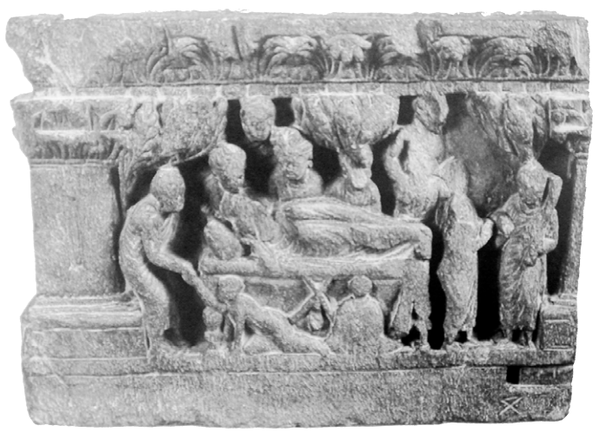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헬레니즘 문화와 불교철학

해외불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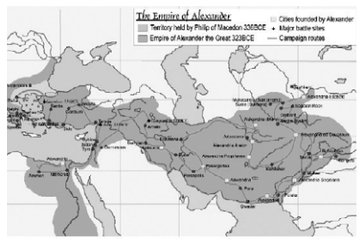
불교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만나 간다라 미술을 형성하며 융화됐다. 사진은 간다라 미술작인 '붓다의 열반'으로 3~4세기 작품이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때보다 약 8세기 앞서 서쪽으로 간 헬레니즘 형 불교 또는 그리스 불교는 동서양의 이질문명과 원격문화가 조화 상승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고유성을 유지해간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전형이라 하겠다. 다신숭배의 헬레니즘문화와 견성성불의 불교철학이 곱고 자연스럽게 서로 어우르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불교가 추구하는 원융(圓融)의 정수를 다시금 볼 수 있다.

12년간 연이은 정복전쟁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알렉산더는 인도 원정을 마지막으로 서른셋의 나이에 급사, 점령지에 대한 통치체계를 확고히 정립할 겨를이 없었다. 게다가 그의 측근 막료들은 제국 내의 정치적인 무질서와 세력견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각자의 주둔지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독립 기반을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그의 측근 참모장이던 셀레쿠스는 인도의 서북부 외곽에서 내륙으로 서서히 남진하여 그리스-박트리아왕조를 창건한다. 이는 인종분포와 문화적 영향력에 따라 인도-그리스왕조, 그리고 쿠샨 왕조로 발전을 거듭한다. 그런 과정에 인도 내륙에서는 마우리아왕조가 몰락하고 숭가왕조가 정통성을 승계하며 불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한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두고 우리 불자들은 타 종교인들처럼 종교적 박해니 신앙적 시련이니 케케묵은 선동적이며 자극적인 수사를 쓰지 않으며 늘 담담한 차별성, 즉 중도를 놓치지 않는다. 객관적 시각에서 볼 때, 남부지역의 신생 숭가왕조가 브라만 등 기득세력권을 선무 활용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통치권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북부지역의



알렉산더 제국 : 불교는 현 그리스에서 인도북부까지 10여개의 신도시 '알렉산드리아'들을 중심으로 서진전법되며 서양문명과 융합됐다.

외세를 배척하고자 시도한 정치 외교적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불교 세력인 인도-그리스 왕조는 당연히 이를 식민통치 종주권에 대한 정면도발로 간주, 인도 내륙으로 남진하여 숭가 왕국의 통치권을 완전히 접수해버린다.

우리 불교도반들은 이런 경우에도 '거룩하신 호법 구세주님께서 인도하사 부처님의 은총에 충만한 불자군의 성전(聖戰)' 따위의 촌스럽고 얼빠진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냥 약육강식의 보편성 또는 카르마에 따라 그리됐거니 여길 따름이다.

그리스 계인 국왕 데메트리우스1세는 기원전180년의 대 승전을 기념하여 코끼리 두상의 왕관을 머리에 쓴 은화까지 주조했는데, 그 기념 은화는 그리스어가 새겨진 드라크마 은화들과 함께 지금도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출토된다. 또한 조일로스, 스트라토, 헬리오클레스2세, 테오필로스 등 역대 그리스 계 군주들의 주화에 새겨진 '다르마의 왕'과 '불법의 수호자' 등 숭불호법의 표상은 당대를 누비던 그리스불교 왕조의 위상을 족히 대변한다.

특히 팔리어로 밀린다라 불리는 메난데르 1세와 2세는 불교의 법륜과 그리스의 월계수를 합성하여 승리의 상징이자 왕국의 국장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한자로 제12존자 나가서나 또는 나선 비구로 알려진 나가세나와 밀린다 왕 사이에 오고간 문답형식의 법문은 <밀린다 파냐> 한자로는 <미란왕문경(彌蘭王問經)>이란 찬연한 불교고전으로 후세에 남겨진다. (계속) 편역=성휴 스님

출처 : Greco-Buddhism, Hindu Hellenic Civilization, Milinda Panha 등

日 이토신조 스님 탄생 기념 전시회

일본불교의 국제전법 전략은 매우 다양하고 신축적이며 경제 지향적인바, 검도, 궁도, 유도 등 각종 무도수련과 차도, 분재 유료강좌는 물론 대형호화 패션쇼와 록 콘서트까지 망라한다. 특히 서화와 조형물 등 고부가가치의 불교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미국 뉴욕시 밀크 갤러리는 2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본의 이토신조 스님의 탄생 백주년을 기념하는 걸작 수백 점의 세계 순회전시회를 개최된다. 출처:IBC

美 플로리다에 태국 불교사원 건설

미국 플로리다 주의 유명 악어 서식지인 에버글레이드와 연중 번잡한 마이애미비치 사이의 과일재배단지 내에 고즈넉한 태국 불교사원이 들어선다. 홈스테드의 부지 약 5에이커에서 오는 2월 초 착공하는 이 창건불사는 향후 수년간 지속되며 건축 중에도 지역사회의 불교발전과 심신수양의 터로 개방된다. 출처: AP

17·8세기 주조 불경 희귀본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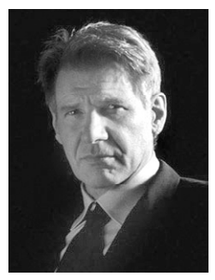
17~18세기에 주조된 불경 희귀본이 1월 27일부터 타이완 고궁박물관에서 최초 공개 전시되고 있다. 전체 티베트문자로 새겨진 이 불경에는 금 250㎏이 소요되고 경함은 약 1만5000점의 보석으로 장엄된바, 동 박물관은 특수고화질 사진첩 전질을 미화로 각 약 3만7000 달러에 보급한다. 출처:CCTV

현대불교 구독신청 문의전화 (02)2004~8200

"대자연 속에서 성찰의 시간을"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해리슨 포드 ❸



해리슨 포드 처사님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시간관념이 정확한 동시에 가장 폐쇄적인 메가 스타로 알려져 있다.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를 고수하는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방해하는 최악의 주범이 인터넷이라 말한다.

이는 다른 스타들이 자기 마케팅을 위해 사이버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활용하는 것과 무척 대조적이다. 그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홍보에 나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와이오밍 주의 잭슨 홀에 있는 자택에서 지낸다. 잭슨 홀은 미국에서 가장 외딴 오지 가운데 하나며 거의 백두산을 연상시키는 방대한 산악지대로 사냥과 산악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러 찾는 곳이다.

틈만 나면 전기, 수도는 고사하고 화장실조차 없는 험준하고 적막한 히말라야의 토굴 암자에 들어앉아 고요히 안거를 하는 리처드 기어 법사님처럼 해리슨 포드 처사님 또한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겸허함을 배우는 은둔수행을 생활화한다.

그래서 다른 할리우드 스타들과 달리 뉴스의 헤드라인에 자주 오르지도 않을뿐더러, 명성에 비해 취재 기사도 꽤 드물다. 모처럼 영화 관련 유명 웹진에 소개된 그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 떼어 내봤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늘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스타이자 다재다능한 해리슨 포드는 부질없는 시간 낭비와 잡다한 허세를 몹시 싫어한다. 그는 오늘처럼 손님이 찾아오면 직접 문을 열고 맞아준다. 그리고 호텔에 머물 때도 늦은 점심 정도는 룸서비스를 받기보다는 키트캐트 초코비스킷 같은 걸로 때우고 만다.

또한 그는 요란하게 경호원이나 수행원을 몰고 다니지도 않으며, 그의 주변에는 홍보요원이나 보좌진도 어슬렁대지 않는다. 대개 혼자인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럼없이 손을 내밀어 힘찬 악수를 건넨다. 그의 첫인사 목소리는 좀 무뚝뚝한 듯 부드럽지만 너무 낮아서 잘 들리지 않을 정도다."

실제로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라는 다큐멘터리를 해설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담담한 자기 확신과 오랜 참선수행에서 비롯된 강인한 내공을 곧바로 느낄 수 있다.

여기자가 물었다. "포드씨는 시간을 아주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원래부터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소중함을 점차 깨닫게 된 결과인가요?"

그의 대답이다. "제가 한 시간이 늦으면 저를 기다리는 상대방의 한 시간마저 터무니없이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두 시간이 그냥 낭비되는 게 아닐까요? 남들의 소중한 시간을 그렇듯 허투루 여겨선 안 됩니다."

다소 유명세를 탄 인기인 입네하고 촬영 현장이나 시상식 등에 일부러 늑장을 떨며 나타나는 꼴같잖은 얼굴에다 정권을 한방 먹이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은 그게 아니다.

절 문 앞이라도 지나치신 분들이라면 지금 해리슨 포드 처사님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삶의 기본, 즉 '염치와 배려'를 차분하게 설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카리스마란 요란한 차림새나 괴이한 언행 따위로 억지로 쥐어짜고 내깔기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중후한 품성과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차올라오는 것이다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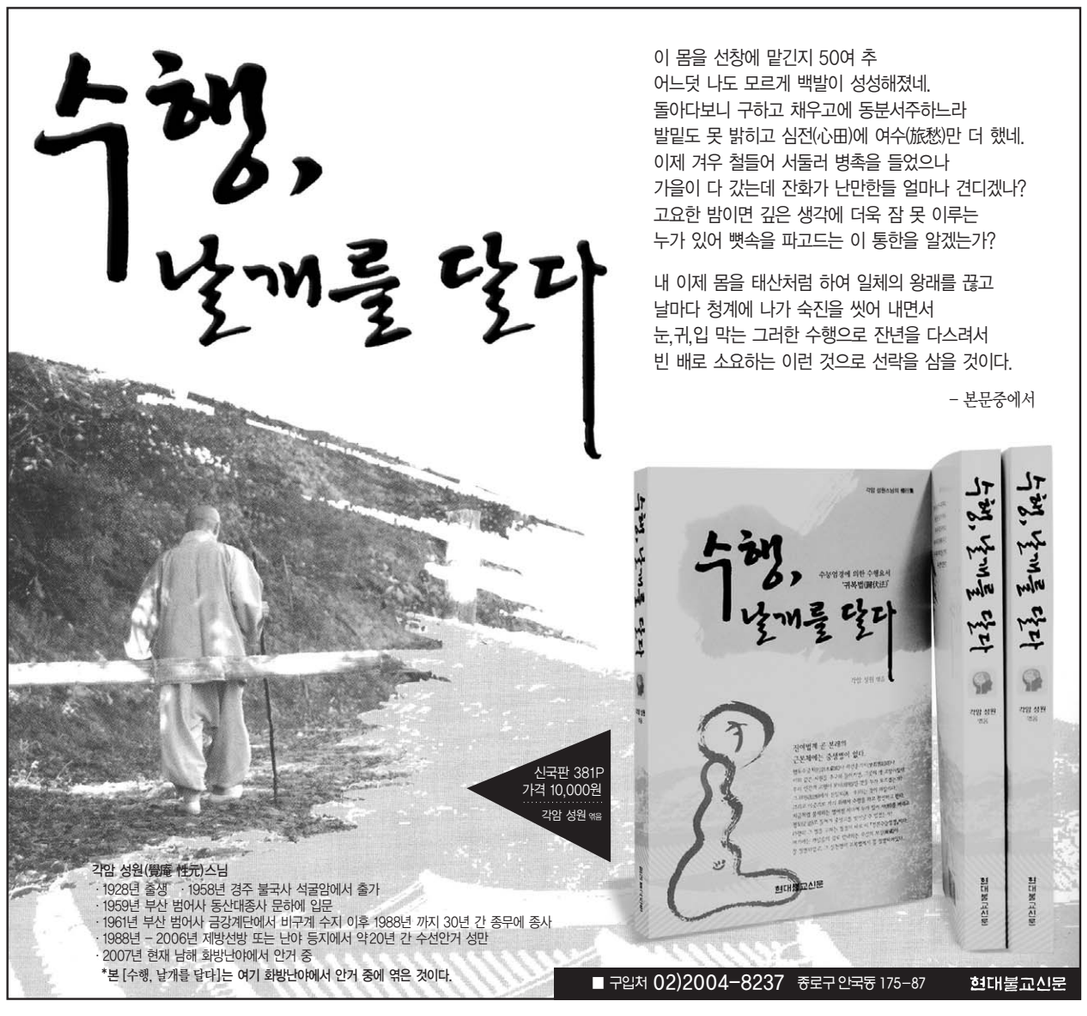


"I don't know who I am. Please, show me my true self!"

-저는 누군가요? 제 진정한 자아를 일러 주십시오.

A distraught man approached the master. "Please, Master, I feel lost, desperate. I don't know who I am. Please, show me my true self!" But the master just looked away without responding. The man began to plead and beg, but still the master gave no reply. Finally giving up in his extreme anger, the man turned to leave. At that moment the master called out to him by name. "Yes!?" the man said as he spun back around. "There it is!" exclaimed the master.

절망과 비탄에 싸인 한 사내가 선사에게 매달렸다. "스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외롭고 참담한 저는 누군가요? 저의 진정한 자아가 뭔지 일러주십시오." 하지만 스님은 아무 말도 없이 딴청만 했다. 사내는 통사정에 거의 구걸하듯 매달렸지만 스님은 역시 대답이 없었다. 하다하다 지쳐버린 사내가 마침내 극도로 분노해서 등을 돌리는 순간, 스님이 그에게 소리쳤다. "이보시오!" "네 !?" 다시 휙 돌아선 그에게 스님이 대갈일성을 쏟았다. "바로 그것이 그대의 진정한 자아라오!"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출강 및 통신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7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8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 · 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봉선사 '자비도량참법' 법회

참회로 깨끗해진 마음엔 生死도 없어라

#끊어진 맥을 다시 이은 뜻은?

운악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도려내는 듯 매서웠다. 이런 강추위와는 상관없이 '자비도량참법' 기도 회향식이 진행되고 있는 설법전은 참회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오랜 세월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녹이겠다는 일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설법전을 뜨겁게 달구고도 남을 정도였다.

봉선사에서는 오랫동안 맥이 끊어진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1월 3일 입재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봉행했다. 1월 31일 회향법회가 열렸다.

<자비도량참법>은 일종의 참회문 총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경전에 들어있는 참회의 방법과 내용들을 일정한 체계로 엮어 낸 책이다. <자비도량참법>을 보면 서두에 참회문을 편찬하게 된 동기가 있다. 중국 양무제는 황후 차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가 나타나 자신이 죽은 황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생전에 궁녀들을 구박하고 질투심으로 인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과보가 너무나 커서 구렁이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부디 저를 위해 공덕을 닦아 주세요."

양무제는 당대의 고승들을 초대해 황후 차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묘책을 물었더니, 참법을 닦아 부처님을 봉행할 것을 권하였다.

<자비도량참법>은 '인과응보를 믿지 않고 자신이 구제받을지를 의심하는 것은 수행과 불법을 닦는데 장애가 되므로 끊어야 한다. 또 죄를 없애는 참회(懺悔)와 반드시 불도를 깨우치겠다는 발보리심을 해야 하며 발원의 결과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고 가르친다.

#묵은 때 먼저 녹여야 행복이 온다

주지 인묵 스님은 "신년을 맞이하여 묵은 때를 녹이는 참회부터 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기에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봉행하게 되었다"고 법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회는 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꽃비 의식으로 시작 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였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듯이, 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 역시 참회기도를 함으로서 새사람이 된다는 의미와 경건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종이로 만든 연꽃잎을 뿌리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의 원한, 타인과 타인간의 원한이 없어야 지옥이 없어집니다. 기도를 하면서 서로가 모두 원한을 풀어 성냄과 어리석음을 생겨나지 않게 하고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해야 합니다."

직접 징과 북을 치면서 참회기도를 진행하는 인묵스님은 300여명이나 되는 동참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자비도량참법 기도 회향은 조상천도재로 이어졌다.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수행하면 죄업을 녹일 수 있으며, 내 식이 맑아짐으로 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단다.

#자꾸만 흐르는 눈물…환희와 가피

몇몇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어떤 노보살님은 <자비도량참법>을 독송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업이 떠올라 자꾸만 눈물이 흐른다고 하였다. 또 어떤 보살은 참회기도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올 1년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수억 겁을 내려오면서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이 한 번의 기도로 소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생에 지은 죄 일부는 희석되고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면 기쁨의 눈물이 넘쳐흐를 것도 같다.

봉산사는 앞으로도 일 년에 두 번씩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봉행할 계획이다. 자칫 분위기라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이 참회기도인데, 북과 징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법당에 얕게 깔리고 분홍 꽃잎이 흩날리는가 하면 나비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바라춤이 있어 마치 축제와도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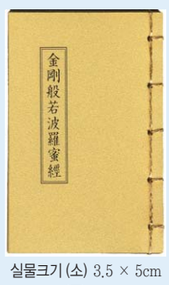
글=문윤정 논설위원 사진=박재완 기자



◀자신이 지은 죄업이 떠올랐는지 자비도량 참법 기도 중 눈물을 흘리는 불자들이 눈에 띄었다.



천도재가 끝난 뒤▶ 주지 인묵 스님과 신도들이 영가위패를 태우고 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비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리장엄구에 '장엄' 된 한·중 불교교류의 역사

함께가요~ 강의실로!

강사 : 양홍 (楊泓,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통역 : 소현숙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강사)
주최 : 불교중앙박물관
일시 : 1월 30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한국과 중국의 고대사리장엄구



'만들어진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 수행을 완성하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훈이다. 전륜성왕 장례법에 따라 다비식이 열리고, 사리는 중부 인도 여덟 곳에 나뉘었다. 이로써 불탑신앙이 시작됐다. 민중불교가 시작됐다. 역사적인 붓다는 진리의 말씀과 수행공동체로 남았다. 장엄된 사리는 불탑에 모셔져 순례자의 성지가 됐다. 사리는 산스크리트어로 'arra'. 참된 수행의 결과로 생겨난 구슬 모양의 유골이다. 중국말로 번역하면 골신이란 뜻이다. 사리가 '최고의 종교적 성물(聖物)'임을 알기에 불교문화사에서 자리하는 사리장엄구의 위치는 소중하다.

지난해 10월 출토돼 고고학계와 미술사학전공자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킨 왕흥사지 사리장엄구는 원통형 청동제 사리함, 은제 사리호, 금제 사리병으로 구성돼 불탑에 안장된 공양품이다. 그중 청동제 사리함은 중국에 전래된 인도식 사리용기를 원형으로 삼아 6세기쯤 백제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에 나온 왕흥사(王興寺)가 사리장엄구 명문에 조각된 '위덕왕 24년'이 아닌 '법왕 2년'에 창건됐다고 기록돼 있다. 사리함의 명문 해석이 사학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의 의미'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데 이어, 불교중앙박물관은 중국 고고학자 양홍 선생을 초청해 한국과 중국의 고대 사리 장엄구 비교를 통한 양국 불교교류의 관계성을 모색해보는 강연회가 열렸다. 1400년 만에 지상으로 외출한 백제의 숨결을 만나보자.


<그림1>


<그림2>

<그림1>통일신라의 사리장엄구(왼)와 돈황 막고굴148의 열반경변상도(涅槃經變相圖, 오른)
<그림2>충남 부여 왕흥사지에서 발굴된 사리장엄구와 명문

한국과 중국의 고대 불교 사리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고대의 불교 사리용기에 대해 설명해볼까요. 불교가 처음 중국에 전래됐을 때 경전과 불상이 유입됐습니다. 그 이후 불교 건축이 이뤄졌고 사리를 매납하는 방법이 중국에 들어왔지요. 저는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주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출토된 불교사원 유적지에서 보이는 탑은 인도식이 아닌 변형된 누각식의 중국형태입니다. 원래 인도불탑의 복발형 탑 및 정상의 상륜 등은 축소되고 불탑 꼭대기의 장식적인 부분이 됐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사리를 매납하는 방법이나 용기도 계속 변화해 인도와는 다른 중국식 특징이 출현했습니다. 중국화된 불교는 한국의 불탑 형태나 사리의 매납 형식에서도 확인됩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발견된 고대 불사리 용기는 형태나 미술사적 측면에서 중국과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현재 고고학적 발굴로 보면 중국에는 유감스럽게도 5세기 이전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른 탑지 유적이 북위시대 481년 건립된 하북성에서 발견된 오급불도지(五級佛圖址)입니다. 수·당 시대 들어서야 발굴된 사리탑지와 사리용기가 20여건에 이릅니다. 북조에서 당대에 이르는 시기의 중국 사리탑과 여기에 안치된 사리용기는 대략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사리용기의 변화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불교의 전래와 중국화의 과정을 아주 잘 보여 줍니다. <표1>

주목되는 점은 중국을 통일한 수 문제 양견(楊堅) 인수원년(601)인 2단계 시기입니다. 수 문제는 전국

구분	중 국	한 국
1단계	북조 전기	삼국 시대
2단계	북조후기-수-당 초	
3단계	당 고종 – 무종 멸법	통일 신라
4단계	선종 복불 – 당말	

<표1>

30주에 사리탑을 건립해 탑 아래에 사리를 안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리의 매납법이 황제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서에 의하면 "유리병 안에 금병을 넣고 사리를 그 안에 넣는다. 훈육향을 개어 뚜껑에 바르고 봉인한다. 30주 모두 동일시각. 즉 10월 15일 정오, 동함과 석함에 넣고 일시에 탑을 건립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당 고종과 무후시기를 거쳐 무종의 폐불에 이르는 3단계 시기에는 사리용기 형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의 주역은 측천무후입니다. 현경5년(660) 3월. 법문사 불사리를 동도 낙양의 궁중에 봉양할 때, "황후가 견 1000필에 해당하는 침의장(寢衣帳)을 희사하여 사리를 위해 금관과 은곽을 만들었다. 아홉 종류로 조각이 아주 정교하고 섬세했다"는 기록이 당나라 도선(道宣)이 지은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전국 각지로 퍼졌습니다. 탑을 만들어 불사리를 안치할 때 무후가 시작한 새 형식이 새로운 규범이 돼 사리용기가 제작됐습니다.

당대의 석조 보장은 경산사의 '석가여래사리보장'이 대표적입니다. 당의 융성기에 만들어진 제148굴 서벽 벽화처럼 당대 돈황 막고굴의 열반경변상도(涅槃經變相圖)에서 녹정형 덮개를 가진 화려한 영장 안에 관곽이 놓여있음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과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1>

불교는 중국의 중원지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요동반도를 거쳐 고구려에 전해집니다. 이후 한반도 남부의 고대국가까지 전파됐습니다. 백제는 중국 남조와 잦은 왕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교를 교류했습니다. 따라서 남조의 사리 안치법과 용기는 자연스럽게 백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 되면서 백제의 불교 사리장엄 공예법이 전수됐습니다. 당대에 들어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는 매우 밀접해집니다. 불교 전파와 상호 교류 또한 빈번했을 것입니다.

<삼국유사>권3의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利)에 의하면, "진흥왕 때인 대청(大淸)3년 기사년(549)에 양나라 사신 심호(沈湖)가 사리 몇과를 가져왔다. 선덕왕 때인 정관(貞觀)17년 계묘년(643)에 자장법사가 부처의 두개골과 부처의 어금니와 부처의 사리 100립과 부처가 입던 가사 한 벌을 가져 왔다. 그 사리를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황룡사 탑에 보관. 하나는 태화사 탑에 보관. 하나는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단(戒壇)에 보관했다"고 전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헌 기록을 통해 역사상 고대로부터 불사리를 포함한 불교문물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발견되는 고대 사리장엄구 또한 이러한 문헌 기록을 증명합니다.

최근 부여 왕흥사지 탑지에서 발견된 한 세트의 사리 용기는 중국의 북조에서 수를 거쳐 당초에 이르는 시기의 사리장엄구 형태와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청동제 사리함(舍利函) 안에 은제 사리병을 넣고, 은제 사리병 안에는 다시 황금으로 만든 작은 사리병을 넣었습니다. 순금으로 제작된 맨 가운데 용기 안에는 사리가 아닌 맑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다중 용기의 사용은 중국의 법문사 지하궁에서 발견된 부처의 지골 사리를 담은 장엄구와 유사합니다. <그림2>

왕흥사지에서 발굴된 사리함에는 '정유년 2월 15일 백제왕 창. 위덕왕 24년(577)에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우고 본래 사리 두 매를 묻었을 때 신비로운 조화로 셋이 되었다(丁酉年二月 十五日百濟王昌爲亡王 子立刹本舍 利二枚葬時 神化爲三)'고 각인된 명문이 있습니다. 이 명문에서 사리장엄구의 제작연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해석에 논란이 많습니다. 해석대로라면 현존하는 한반도의 사리장엄구중 가장 오래된 사리장엄구가 출토된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고대 사리장엄구는 양국 간 밀접한 문화교류의 산물입니다. 왕흥사지 사라장엄구 출토를 계기로 지속적인 학술 연구를 통해 양국의 고고학적 발굴 진행이 더욱 심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백제 왕흥사 특별전'을 4월 20일까지 개최한다. 문화체험실에서는 '청동제사리함 명문 탁본과 해석해보기' 행사를 실시한다.(041)833-8562~3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daum.net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큰 물음’ 생기면 모든 것이 화두



묘봉 스님 (화계사 문화원장)

법문 읽고 또 읽어 꿰뚫어야 진정한 물음 생겨
마음 모아 일에 열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정진’

“운문 스님은 목주 스님에게 참문(參問)하러 갔다가 목주 스님이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문지방에 다리가 치여 부러졌습니다. 회양 스님은 육조 스님의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란 질문에 막혀 8년을 끙끙 앓으며 참구했습니다. 고인들은 이렇게 처절하고도 간절하게 공부했기에 크게 깨쳤는데, 요즘 수행자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입춘(立春) 하루 전인 2월 3일 오후, 화계사 대적광전. 수선회(회장 박종환) 일요 참선법회에서 화계사 문화원장 묘봉 스님은 “화두를 참구하는 요결은 이러저러한 행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간절 절(切)’ 자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남전참묘(南泉斬猫: 남전이 고양이를 베다)’ 화두를 예로 들며, 공부하는 법을 제시했다. ‘남전참묘’ 공안의 전말은 이렇다.

어느 날 동당과 서당 간에 고양이 새끼 한 마리로 시비가 벌어지자, 남전 스님이 고양이 새끼를 치켜들고 말했다.

“대중들이여, 대답이 알맞으면 살리고 대답이 맞지 않으면 목을 베리라.”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대꾸가 없자 남전 스님이 드디어 고양이를 베어버렸다. 밤늦게 조주 스님이 외출했다가 돌아오자 남전 스님이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 조주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짚신을 벗어 머리 위에 이고 나갔다.

이에 남전 스님이 말하였다. “네가 만약 있었더라면 고양이 새끼를 구했을 것을….”

이 공안과 관련, 묘봉 스님은 옛 스님들처럼 저절로 발심이 되어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이 목숨을 살리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조주 스님이 짚신을 머리에 이고 나간 뜻은 무엇일까? 남전 스님이 ‘그대가 있었더라면 고양이 새끼를 구했을 것’이라고 칭찬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 깊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님은 우주와 인생에 대해 깊이 고뇌하여 마음에 큰 물음이 생길 때 화두 아닌 것이 없게 된다고도 했다.

“우리 선종은 매일 독경하는 <천수경> <반야심경>은 물론 예불문, 천도재 법문에도 조사스님의 법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법문 아닌 구절이 없어요. 예사로이 글자나 탐착하지 말고, 읽고 또 읽어 꿰뚫어서 몸에 와 닿아야 진정한 물음이 생깁니다.”

참으로 발심이 되면 공부 아닌 게 없다는 스님은, 주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생사(生死)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생사 해탈’하는 일대사에 용맹심을 내야 한다고 했다. 참선이든, 염불이든, 독경이든 해보지도 않고 수행법을 비방하지 말고 하나라도 직접 체험해 보면서 공부할 것도 주문했다. 스님들의 설법을 마치 TV 보듯이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법문 하나하나를 자신의 문제로 돌려, 제 마음을 돌아보는 신심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禪)의 대중화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묘봉 스님의 설법은 수선회 회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심지법문(心地法門)이 되고 있었다. 대전 국은사에 머물며 미국, 대만, 홍콩 등을 대상으로 해외 포교에 주력해 온 스님은 지난해부터 화계사에서 신도들과 20여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선법문을 시작해 호응을 얻고 있다. 1975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 생활을 통해 현대적인 전법모델을 고민해 온 스님은 그동안 문서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천수경>을 본격적으로 선해(禪解)한 <눈 달린 돌사람이 글자 없는 책을 읽는다>와 <육조단경> <선문촬요> <조사선에로의 길> <철학의 파멸> 등의 저서가 그것.

내 · 외전에 두루 밝은 스님은 만공 선사로부터 법을 이은 덕산, 혜암 두 큰스님의 선지(禪旨)를 이어받았다.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을 지낸 혜암 스님의 전법제자인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시절에 화계사 조실 덕산(悳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이 불법에 입문한 것은 동국대 3학년 재학시절, 천축산 불영사 황화선원 불교학생수련대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실이던 덕산 스님은 만공 스님의 법제자로서 내선원장(內禪院長 · 당시 외선원장은 고봉 선사)을 맡고 있던 선지식이었다. 스님은 덕산 스님으로부터 한 번 법문을 듣고 크게 뉘우친 바 있어 사흘 밤낮을 정진했는데, 그 때의 법문은 달마 대사의 <혈맥론(血脈論)>이었다. 그 길로 덕산 노스님께 귀의하여 곧 입실을 허락 받고는 ‘판치생모(板齒生毛: 앞 이빨에 털이 났다)’ 화두를 간택 받아 의심하면서 기나긴 참구의 여정에 오른 것이다.

스님은 1975년, 5년간의 동국대 · 상명대 강사 생활을 과감히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정치 경제뿐 아니라 사상과 종교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자기 공부와 함께 전법의 방편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1981년까지 대학 강단과 철학모임 등에서 동양 철학의 소개와 좌선법을 안내하는 역할로써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느낀 전법의 한계가 오히려 자기 공부를 채찍질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1981년, 음력 정월 그믐날 꿈에 덕산 스님이 나타나 10개의 공안을 들고 다그쳐 묻자 부지불식간에 대답은 했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서울 화계사로 전화를 거니 같은 시각에 덕산 스님이 입적했다고 한다. 이 꿈을 계기로 스님은 화두를 스스로 점검할 길이 없고 마음이 점점 조급해져 곧바로 암자와 아카데미를 폐쇄하고 들어앉아 몇 안 되는 외국인 제자들과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그래도 공부에 진척이 없자 스님은 20년 전, “수덕사에 가서 혜암(惠菴) 노장께 여쭈라”고 한 덕산 스님의 말이 기억나 그 길로 귀국해 수덕사 혜암 스님을 친견했다.

그때가 1984년 정월 보름 해제날이었다. 혜암 스님으로부터 <육조단경> 법문을 전해 듣다가 전에 덕산 스님이 간택한 화두인 ‘판치생모’를 문득 타파하니 혜암 스님이 ‘옳다’고 하며 입실(入室)을 허락하고, 뒤에 다음과 같은 전법게를 내렸다.

“산에는 같음과 다름이 없나니, 대 가풍이라 할 것도 없네. 이 문채(文彩) 없는 도장을 묘한 봉우리에 부촉하노라.”

4년 전, 스님은 “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라는 필자의 질문에, “원칙이 있는 수행은 벌써 죽은 공부다”고 답한 적이 있다. 고정관념과 분별심을 철저히 쳐부수는 선(禪)에서 ‘원칙’이란 말이 성립될 리 없다. 스님은 “부처님이 나오신 그 곳은 나와 네가 다르지 않고 성인과 범부가 둘이 아니며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고 말하는 터전이므로 심지(心地)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존재의 세계 그대로가 일심법계(一心法界)이니,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또 버릴 것인가.

염불, 독경, 다라니 정진에 대한 스님의 견해 역시, 옳으니 그르니 하는 분별심을 찾아 볼 수 없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무엇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가?’를 찾으세요. 다라니를 외울 때도 소리 내는 그 당체, 언어이전의 소리를 체험하세요. 또렷하게 뭘 물어야 하는지를 알면 참선 아닌 게 없어요.”

스님은 운전하거나 일할 때는 철저히 그것과 하나되라고 말한다. 일과 하나 되어 열중하는 그 순간이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는 정진이란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진할 때나 일하고 쉴 때가 모두 깨어있는 시간이 아닐 도리가 없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자, 인터뷰 내내 함께 한 젊은 도반이 이렇게 말했다.

“이젠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이치를 쉽게 말한다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 의미 있는 하루였다.

글 · 사진=김성우 객원기자

묘봉 스님은 1942년 태어난 스님은 동국대 3학년 재학시절, 천축산 불영사 황화선원 조실 덕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5년간 동국대 · 상명대 강사로 활동한 스님은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앨라배마(Alabama) 주립 대학에서 불교를 소개하는 자유대학에 출강하고, 그라임(Grimes) 박사와 ‘Opening Mind Academy(열린 마음 아카데미)’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1981년 화두참구에 몰입하기 위해 귀국한 스님은 수덕사 방장 혜암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고, 1984년 전법게를 받았다. 이후 대전 국은사를 창건해 미국에 버지니아 주 세계사 일화선원, 캘리포니아 주 서선사, 아리조나 주 일광선원 분원을 두고 해외포교에 주력한 스님은 2007년부터 화계사 문화원장을 맡아 선(禪) 지도에 나서고 있다.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불교학자는 된 만큼 말해야 하고 말한 만큼 돼야”

나의 삶 나의 불교학

서윤길 교수



교육에는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 두가지가 있다. 들려주는 교육은 이론으로 무장해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여주는 교육은 삶 속에 녹아있는 모습을 말한다. 보여주는 교육이 ‘됨’이라면 들려주는 교육은 ‘앎’이다. ‘앎’과 ‘됨’의 두가지 중 특히 불교학자라면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나는 보여주는 교육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들려주는 교육도 부족해 부끄럽다. 특히 22년 보직 살면서 학자 본연의 연구가 부족했던 것에 후회한다. 지금까지 내 불교학은 남을 위한 것이었다. 내 공부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강의도 남을 위해 했다. 이제는 내 자신의 근본 문제를 고민하며 나를 다듬는 일에 매진한다.

나는 불교를 불교인지도 모르고 배웠다.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때 전주로 피난을 갔다. 전주고에 다니던 나는 서정주 시인에게 국어를 배웠고, 미술가 나상만 선생에게 미술을 배웠다. 중학시절 읽었던 <슈바이처 전기>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당시는 ‘사회복지’라는 말도 학문도 없었다. 다만 어린 마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고, 그러려면 철학과 자금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고교 2학년 때 하동 쌍계사에 출가하러 갔었다. 고등학교나 마치고 오라고 퇴짜 맞았다. 다시 학교로 왔지만 복학이 안됐다. 전국 유랑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발길 닿는 곳으로 떠돌아 다녔다. 대전역 앞에서만 거지들과 1달 반을 생활했다. 지금도 어릴 적 배운 학교공부는 기억나지 않아도 1년 동안 유랑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들은 생생하다.

고등학교로 돌아온 나는 신학과 유학, 불교학을 사이에 두고 고민했다. 서양철학을 전공하던 선생 한분이 내게 불교학을 공부하라는 추천을 했다. 당시 동국대 불교학과는 후기였다. 재수할 형편도 못됐지만 나는 전기시험을 치루지 않았다. 그만큼 불교학과에 진학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대학공부를 하며 노점상, 포장마차 닥치는 대로 다했다. 학부를 마치고 나니 대학원 공부가 필요했다. 석사를 마치니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다. 내친 김에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내 공부는 은사인 故 홍정식 교수가 없었다면 어려웠다. 홍 교수는 내 후견인이었다. 생활이 어려웠던 내게 아르바이트 자리는 물론 강의 자리까지 주선해 줬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불교학 졸업자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교법사 시험을 1등으로 통과한 나는 대동상고에 발령받았다. 박사과정을 대동상고에서 선생을 하며 마쳤다.

<도선과 그의 비보사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다들 중국도참설로 알고 있는 것이 밀교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내 논문에 故 조명기 박사 등 교수들 칭찬이 자자했다. 그 논문 덕에 나는 교수가 됐다.

독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책을 계속 읽다보니 견해가 바뀌었다. 30대 출세의 발판이 됐던 도선 국사에 관한 논문을 50대에 다시 썼다. 용감했던 30대에는 “도참, 음양오행 모두 아니다. 오로지 밀교”라고 썼지만 50대 내 논문은 “원류는 밀교지만 음양오행, 도참도 스며있다고 본다”로 바뀌었다. 강의도 그랬다. 젊은 시절의 강의는 이론과 주장만 강조하며 시비가 분명했다. 50대가 넘으니 자료와 견해를 소개하고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외부강의를 하면서는 남에게 박수 받을 방법만 연구했다. 어려운 사람 도우라는 뻔한 말들로 박수를 받았다. 세월이 흐르니 어느 순간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나는 그들을 기억 못해도 그들은 나를 알지 싶었다. 괴롭고 부끄러웠다. 그 이후부터 나는 지하철 걸인 하나 지나치지 않았다. 천원짜리를 꺼내 건넸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건넸다. 나를 알아볼 사람은 어서 알아보라고.

지관 스님 총장 시절, 6 · 29 선언 등 민주화시위가 한창일 때 학생처장을 맡으며 어느 누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처신했다. 소신으로 재단과 학교, 학생들에게 인정받다보니 정년까지 22년을 보직을 쉬지 않고 맡았다.

관리처장을 맡을 때다. 당시 난로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석달씩 걸렸다. 직접 현장에 가봤더니 용역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 정인악(불교대학원 동문회장)씨에게 200만원만 달라고 했다. 그 돈으로 앰배서더 호텔 부페를 대접했다. 남은 돈으로 청평야유회를 갔다. 내게 “처장님…, 아저씨…, 형님…” 하던 용역 직원들은 “처음으로 인간대접 받는다”고 했다. 이후 석달 걸리던 난로 설치와 철거는 10여일로 줄었다.

22년 보직을 이어 살면서 그래도 잘살았다고 생각할 때가 요즘이다. 퇴직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 사람을 인정하고 아껴야 한다. 사람 하나도 보듬지 못한 자가 어찌 수행하고 성불하겠는가. 특히 종교하는 사람은 남에게 나서기에 앞서 내가 됐느냐의 자성이 필요하다. 들려주는 설법보다 보여주는 설법을 해야 한다. 된 만큼 말해야 하고 말한 만큼 되야 한다. 불교는 이론과 실천이 겸비돼야 한다. 일례로 성철스님이 화두를 “몽중일여, 동정일여, 숙면일여 해야 한다”고 한 것을 경험 없는 자들은 단계로 착각한다. <능엄경>에 “이근 통달만 되면 육근이 통달한다”고 하지 않았나? 불교는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다.

대동상고 교사 시절 학생을 모아 ‘선재회’를 꾸렸다. 중학생들 머리를 깎아주고, 공병을 모았다. 꽃을 떼다 광화문에서 팔며 돈을 모아 어려운 학생을 도왔다.

하루는 수도공고 교사인 큰 딸 혜림이가 돈이 없다며 집사람과 싸웠다. 무슨 일인가 물으니 점심을 굶는 학생, 수업료 못내는 학생 등 어려운 학생을 위해 월급을 모두 써서 자기 밥값도 없다고 했다. 자식 하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했다. 그 날 우리집 냉장고에는 ‘혜림이 밥값’이라고 쓰인 봉투가 붙었다. 나는 담배를 끊고 담배살 돈을 봉투에 넣었다. 고스톱 해서 딴 돈도 넣었다. 장모님도 보탰다. 집에서 모인 돈만으로 학생 5명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줬다. 사회교육원장 때는 이송자 보살(탄허문화재단)이 도와 3명 학생과 새로 인연을 맺었다. 그렇게 도움 준 학생들 중 1등한 학생은 동국대 공대에 진학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진학한 학생도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어릴 적 못다한 꿈을 여러 교수들과 이수덕, 배관성 등 제자들이 도와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밀교는 불교의 꽃이고 해답이다. 현교(顯敎)로는 보살7지까지 오를 수 있다. 보살8지부터 성불하기까지는 밀교(密敎) 수행법이 필요하다. 또 현생업은 현교로 소멸하지만, 전생업은 밀교만이 가능하다. 시골 장독을 보면 워낙 오래 묵혀둔지라 장독에 찌꺼기가 있다. 찌든 때는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옅은 찌꺼기는 물로 헹궈도 없어진다. 중간 두께는 식초로 하면 없어진다. 하지만 바닥에 눌러앉은 것은 복껍질로만 가능하다. 복껍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밀교의 진언 수행이다.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다. 불교를 알았기에 더 큰 악행과 악업의 유혹을 이겼다. 불교가 아니었다면 참회할 기회도 없었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전전긍긍하며 밤새 울었던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며 시작한 것도 내가 남을 위해 불교공부 해온 이유였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이 아닌 나를 위해 불교공부를 하고 싶다. 오늘도 나는 관음정진을 하며 내 마음자리를 찾는다.

정리=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서윤길 교수는 1941년 하동 출생. 1968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고려시대의 밀교사상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 밀교사상 분야의 독보적 존재로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장익 교수(위덕대), 김영덕 교수(위덕대), 최성열 교수(조선대), 이정수 박사, 정성준 박사, 배관성 회장(거평프레야), 이수덕 사장(전 불교TV) 등이 논문지도를 받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고려밀교사상사연구> <밀교개론>등이 있다.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해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함께 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되시길 합장 발원합니다. 동안거 수행 정진하시는 대덕스님 및 재가불자님께 **고무신코 만행화**를 소개합니다.



영하 10도에서도 발이 시렵지않고 초극세사 방수원단 콜크中창, 보아털 10mm 지압식 실리콘 동 깔창, 미끄럼 방지 논슬립 깔창, 수작업으로만 고집하여 만들었으며 이미 대덕스님, 불자님들이 신어보시고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불교의 예절에 있어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로 인한 몸건강을 생각하며 우리고유의 **설 명절, 동안거 해제**를 맞아 **만행길에 만행화**신발을 보시, 선물로써 좋은 생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무자년 한해도 건강 하세요.

대표 박 벽산 합장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법보시 상담 환영
■ 본사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종각역 2번출구 100m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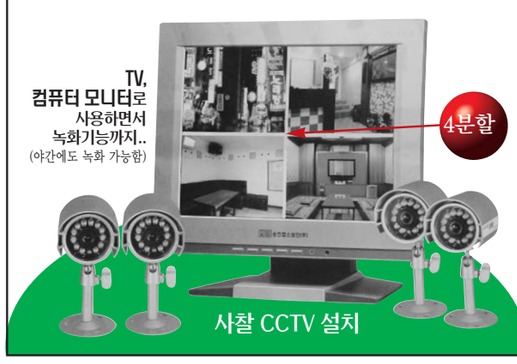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정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9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 격 취 득 안 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역학 개인지도
정통으로 배워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안내 : 정규반 / 전문가반 각 개인지도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 주공 5단지
◇원장소개 : 미래예측학 박사과정 5학기(논문과정)
역학입문 18년, 역학지도 10년, 법학 석사
청하미래예측연구원 · 청하명리학당
02)2202-3632
017-723-5808

도심속에 생활불교 통영사
열린포교, 열린수행, 열린선방
종교를 초월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스님,불자님,
법사님)모십니다. 침식 무료제공
큰사랑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대한불교 국제조계종 열린포교 선화법사)
010-8726-1357
02)3426-1357

전국 어디든 암자, 사찰, 사찰터
무료보시 해주실 큰마음,
큰사랑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스님은 청정비구로서 (세속 50대중반)
도심속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부처님을 옮겨 모셔야
할 딱한 처지에 있어 스님들과 불자님의
큰사랑과 따뜻한 관심, 인연을 기다립니다.
051)816-3562
누구나 힘든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연락주세요.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비구니스님 되실 분과
남은 여생을 부처님과
함께 지내실
보살님을 기다립니다
▷경남 김해
017-543-7200

출가에 뜻을 둔
여(女)행자
인연을 찾습니다
(대구 팔공산)
011-825-3181

부전스님(비구)
필요한 사찰은
전화연락바랍니다
010-9929-950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천년고찰)
011-415-5558

부전스님
모십니다
영천 신녕 대원사 총림
053)981-0664
016-515-0664

종 무 원
구 함
(경남 창원길 상사)
055)289-728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53)652-3219

오래계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무실, 법당,거사님,
보살님 모십니다
051)242-1684


시인,한글,
한문,난,매
016-478-5545



주 문 제 작
다라니,경문,경면주사 - 액자, 표구
(02)577-3375 무 불 장 터
연락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비 염 · 치 질
아무리 심한 악성,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도
한약복용만으로 조기에 치료됩니다
※ 전화 상담 환영
유 림 한의원 051)333-4455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105-중-2008호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2008년도 영남범음범패 및 작법무
제 5기 수강생 모집
첫개강 2008년 3월 15일
영남범음범패 (통도사소리)
◇매주 : 토요일 오후 3시 회비
월10만원 (녹음기, 필기구 준비)
▶기초반 안채비 ~ 불공의식까지 (1개월)
(요령, 목탁치는법, 도량석, 새벽종성, 조석예불, 각단불공)
▶중등반 안채비 ~ 천도의식까지 (5개월)
(상용영반, 종사영반,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다비문(초상집염불))
▶전문반 바깥채비 ~ 불공,천도재 (1년)
(범패, 징, 강쇠, 북, 호적(태평소))
▶연구반 바깥채비 ~ 제반의식 모든과정 (3년)
(점안식, 예수재, 수륙재, 영산재 등 모든 과정)
▶불교무용반 통도작법 - 나비춤, 바라춤 (1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회비 월10만원
◇ 자 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는분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 사찰의 규모가 큰 범음범패 교육도량으로
전통 그대로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 광 사
종무소 055)364-4747 / 주지실 055)364-4848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월·일·시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 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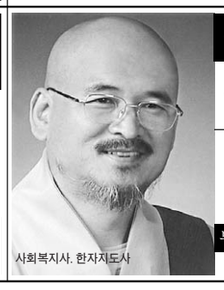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역 학 공 부
●사주초·중급 : 월요일 18:30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양택 풍수 인테리어: 3월 첫째 화요일 개강
주역, 풍수금낭경,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관인 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희탕 앞 송광정사

실전 사주 명리학
제 2기 수강생 모집
① 인원 : OO명
② 교육개강일자 : 2008년 3월 8일(토) 오후 1시
③ 교육기간 : 6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5시
④ 신청방법 :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문과 1기수강생들의 교육후기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 본회의 실전 사주명리학 강의는 이제까지 어느 고서, 어느 곳에서도 익힐 수 없었던 실전 지식 체계로서 고급 편부터는 철저히 팔자술 실전의 첨단기법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 물상의 결합, 나들이, 허귀, 허합자, 공협, 도충, 오운육기, 공망비약 등의 비법과 형충회합 스킬에 대한 고도의 실기묘법은 그 누구도 명확하게 풀지 못한 천기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마치게 되면 누구나 더 이상의 틈이 없이 적중시키는 필살기를 다듬게 되어, 실제상황에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족집게추론을 하게 됩니다.
성 지 관 음 회 회장 혜천 법사 합장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전화 031)768-8414~6 / 팩스 031)768-8413

初發心自警文 강좌안내
◇ 개강 : 매주 금요일
◆ 1 - 2시 30분 自警文(야운스님) 4개월
◆ 3 - 4시 30분 誡初心學人文(지눌스님) 2개월
◆ 5 - 6시 30분 發心修行章(원효스님) 2개월
출가수행자는 진리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두눈
똑바로 뜨고 곧장 나아가 어떤 집착도 남기지 않는
열반의 경지를 얻기 위해 출가한다고 했다.
오직 이 경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이는 드물다.
蓮華藏世界 初發心專門講堂
彌 昊 합장
한자 속 독 한글
한꺼번에 정확하게 습득되면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는 세계 최초 속독의 원리와
한자의 특수성을 활용한 획기적인 과학적 속독교육
(발명특허출원 56648호)영재교육
010-2831-8426 / 02)723-8426 (조계사부근)

불교대구회관
만불보전 점안및
개원법회
불기 2532(1988)년부터 대구지역 스님 및 불제자
님들께서불교대구회관 건립을 위한 원불모연을
시작하였습니다.
불제자님들의 지극한 발원으로 2003년 3월에
대구 남구 명덕로타리 부근 우리은행 뒷편에
불교대구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제 회원스님들과 전 불자님의 원력으로
아래와 같이 원불법당을 개원하게 되었으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일시 : 2008.2.26(음 1.20) 오후 2시
장소 : 불교대구회관 6층 만불보전
문의 : 소속사찰 및 사원주지연합회 사무국
053)629-9500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
회 장 수암 법 혜
회 원 일 동



불서 읽기 캠페인

'선의 전성기' 선사들의 격외도리 '격외'로 읽기

스님들의 어록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써

대부분의 불자들이 선어록(禪語錄)을 즐겨 읽는다. 그러나 선어록은 위험한 책이다. 선이 갖는 격외(格外)의 기록들이기 때문이다. 격외란 일상적이지 않다. 의외적이고 돌발적이다. 선어록은 선사들의 격외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선불교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깨달음이란 불자의 목표 자체도 잘못 설정될 수밖에 없다.

선어록은 잘 읽기가 쉽지 않다. 격외의 도리를 암호처럼 기록한 것이 선어록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대의를 묻는 질문에 "마른 똥막대기" 라거나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하는 대답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독지들은 '원래 어려운 것이니까' 혹은 '어차피 암호니까'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선어록을 읽는다. 그러한 독서법이 마침내 자신의 눈을 밝게 하기는커녕 더 큰 어둠으로 자신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정반대의 조화>는 선어록들에 나오는 여러 텍스트들에 대한 저자의 '다시 읽기' 내지는 '되받아 쓰기'의 기록이다. 선어록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견해를 담았다. 물론 새로운 견해라는 것조차도 선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언어로 기록되어 전해오는 옛 선사들의 정신이 오늘의 수행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조화>는 기존의 선어록 해설서와는 분명 다르다. 기존의 선서(禪書)들은 대부분 어록에 전해지는 텍스트의 내용을 '긍정'의 입장에서 바라봤다. 어록에 전하는 일화나 예화 화두들을 수긍하는 입장에서 그 뜻을 펼치느라 여러 가지 보조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경험담들을 들려주었다. 그래서 선사들의 어록에 대해 은연중에 절대로 훼손할 수 없는 권위가 있다는 착각까지 형성시킨 것이다.



정반대의 조화(상 하)
석진오 지음
현대불교신문 펴냄|각권 1만 5000원

<정반대의 조화>는 '다시 읽기' 내지는 '되받아 쓰기'의 기록이라는 필자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6조 혜능의 직계제자인 청원행사 선사로부터 9세기 말의 현사사비 선사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 간 활동한 '돈오선의 절정기' 스님들의 어록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읽고 풀고 쓴 것이다.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자는 선사들의 어록을 '부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부정' 혹은 '삐딱'한 각도에서 텍스트를 점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사들이 전하는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물론 진리는 부정이나 긍정, 또는 바로 보는 것과 삐딱하게 보는 것에 있지 않다. 보는 방향과 방법에 따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폭과 깊이가 다를 뿐이다.

<정반대의 조화>를 펴낸 진오 스님은 선어록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지나치게 규격화된 폭과 깊이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님의 원고작업은 다소의 저항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해석의 새로움에서 오는 저항일 수도 있고 진리의 근원에 대한 견해 차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 차이와 저항이 저자의 잘못은 될 수 없다. 선사들의 어록 자체가 '격외'의 모순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를 풀어내는 방법의 차이를 두고 왈가불부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은 후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원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불교공부는 고정적인 지식의 관념적인 체계가 아니라 항상 나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생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불자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불자생활백서 윤창화 · 고명석 지음|민족사 펴냄|9800원



아주 기본적인 것은 잊어지거나 무시되기 쉽다. 기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생기는 균열은 크다. 처음부터 크지 않더라도 점점 균열의 틈새가 넓어져 마침내 봉합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간다. 소위, '기초질서'라는 것만 봐도 그렇다. 돌이킬 수 없는 곳에서 바로잡으려 발버둥치는 '기본'들이 어디 한 둘인가?

불자들의 생활예절도 마찬가지다. 사찰이나 생활현장에서 불자답기 위해서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아 불자의 생활이 불자답지 못하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불교 출판계의 대부 윤창화 민족사 대표와 조계종 포교연구실 고명석 선임연구원이 함께 쓴 <불자생활백서>는 불자가 불자답게 살기위해 지켜야 할 기본들을 추려서 해설한 책이다. 자신만만한 불자가 아니라면 꼭 읽고 기본기를 닦아야 할 책이다.

그렇다고 합장은 이렇게 하고 삼배는 이렇게 하라는 종류의 행동규범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참된 불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신적인 자세를 더 강조하고 있다. 기본이란 바로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늬만 불자가 되지 말자' '내가 믿는 불교의 가치를 정립하자' '불교계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1부 이상 구독하자' 등의 주제들이 이 책의 '탄생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현대불교에 카툰 'I love 붓다'를 연재했던 용정운씨의 삽화가 재미와 이해를 돕는다. **임연태 기자**

스님들의 행자시절 통해 참된 가르침 느껴져

나의 행자시절 1 · 2 · 3 박원자 엮음| 다할미디어 펴냄|각권 9800원



해인사 스님들이 펴내는 월간 <해인>에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연재된 112명 스님들의 행자시절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동국대 역경위원을 역임한 박원자씨가 발품을 팔아가며 짧지 않은 세월동안 전국 사찰의 스님들을 만나서 전해들은 맑고 순수한 행자시절의 이야기들을 담았다.

대부분 스님들의 행자시절은 고생으로 점철돼 있지만 내적으로는 불가에 들어선 기쁨으로 가득차 있었다.

행자시절의 애환과 인간적인 모습도 솔직하게 표현돼 있다.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출가한 뒤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짓는 일이 너무 힘들어 꾀병을 부리며 하루종일 누워 있던 일화를 소개했다.

스승들의 엄격한 행동이 수행생활 하는데 큰 지표가 됐던 일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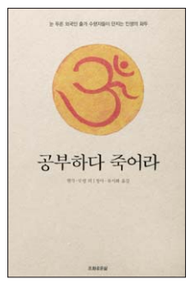
현각 스님(강릉 대성사 주지)은 한암 큰스님이 사라져서 온 절의 대중들이 찾아 나섰다가 수채 구멍에서 수학여행 학생들이 버린 밥의 쌀을 한 알 한 알 깨끗이 씻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점차 '중(僧)물'이 들었다고 말한다.

혜인 스님(단양 광덕사 주지)은 성철 스님의 "명심해라, 지금까지 절하다 죽은 놈 없고 절하다 죽더라도 지옥은 안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번 시작했으면 멋지게 회향해야 한다"는 말씀에 100만배를 마치고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대다수 스님들의 기억속에는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만공, 한암, 효봉, 청담, 성철 스님 등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배어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법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실천하려는 큰스님들의 모습과 그것을 몸에 익히려는 중진이 된 스님들의 행자시절 모습을 통해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 번 쯤 되돌아 보게 된다. **김주일 기자**

혜암 스님이 설파한 화두이자 마지막 열반송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 · 무량 외/청아 · 류시화 옮김|조화로운 삶 펴냄|1만4000원



2003년 11월 9일. 대전 자광사에서는 파란 눈의 수행자들이 영어로 진행하는 이색 법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피부색도, 언어도 심지어는 종교도 모두 달랐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었다. 불법을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이다. 이듬해 9월까지 매월 둘째주 일요일마다 법회는 계속 되었다.

<공부하다 죽어라>는 그 당시 감동 법문을 한국말로 번역해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에는 왜 그들이 미래가 보장된 삶을 포기했는지, 또 결국 그들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자광사 주지 청아 스님과 류시화씨가 벽안(碧眼)의 수행자들이 던진 삶의 화두를 하나하나 충실하게 옮겼다.

책에 등장하는 설법자들은 모두 심상치 않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이와 국적을 불문한 사람들에게 불교의 '도'(道)를 전파하는 젊은 지성 11명은 한때 하버드 · 예일 · 코넬 · 오르본대학 등을 나와 촉망받던 인재들. 하지만 그들은 서양의 종교와 철학에서 정신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출가수행의 길을 선택했다.

예일대와 하버드대 대학원을 나왔지만 1990년 숭산 스님을 만나 출가한 현각 스님이 수행하며 깨달은 것은 '무상'의 진리다. 현각 스님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 변화를 막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무상의 진리에 관해 명상해야 한다"고 설법한다.

설법자 중에는 달라이 라마의 제자인 스위스 제네바 출신 게셰 툽텐 룬둡도 있었다. 현재 뉴욕 티베트센터 책임자인 그는 "자비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인 무지를 제거하려는 염원"이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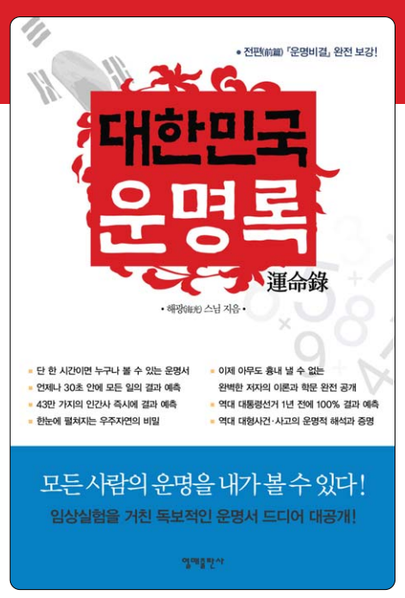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5	부루나의 노래	법현	운주사
6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7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8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9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10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 격 : 정규종단에 승적이 있는 스님,
법사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서적구입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외 인터넷서점 · 불교서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풍기 정품
홍삼 액기스 판매



100ml×60포
(한달분)
20여종 제품 판매

판매처 054)634-3429 휴대폰 011-9373-3778
E-Mail : pay3579@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 (예금주 : 박영애)

대리점 운영하실분
(물품대 백만원으로 생활고 보장)



여름철 풍기 인견옷, 인견이불, 몸배, 난방 판매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제품 –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책 없으면 불교는 화석이 될 겁니다”



화남 출판사 방남수 사장은 앞으로 매년 불서 5권 이상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화남 출판사

2월 4일 봄기운이 밀려드는 입춘, 불서읽기 운동에도 조금씩 싹이 터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불서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을 다시 찾았다. 서울 망원동에 위치한 화남출판사(사장 방남수)다.

이곳을 처음보면 불서를 만들어 내는 출판사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화남출판사가 인문 · 소설 등을 아우르는 책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간 도서 200여종(자서전 등을 포함)가운데 30여종이 불교 또는 선(禪)에 근거하고 있는 서적이라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본격적으로 책을 펴낸 시점이 2002년부터였다고 한다면 1년에 적어도 5종의 불서는 만들어낸 셈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책들의 목록을 살펴보니 불서 외 종교서적은 단 한 권도 없다. 일반출판사가 불서를 전문출판사 못지않은 수준으로 만들어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남수 사장이 빙긋이 웃으며 답한다.

“제가 불교와 인연이 깊어요.”

화남출판사를 알기 위해서는 방남수 사장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 화남출판사가 왜 불서 출판을 많이 하는 곳인지 알려주는 열쇠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방 사장은 서울 도선사에서 혜성 스님을 은사로 19세 되던 1977년에 출가, 청정 비구의 삶을 꿈꿨던 이력이 있었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무작정 도선사에 출가한 그는 이후 10년 동안 불교와 학문 사이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다 방 사장은 1980년, 도선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요즘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는 ‘10 · 27 법난’ 때문이었다.

“군대를 갔다 오니 혜성 스님 상좌는 방부(절에서 기거하도록 해주는 것)를 받아들여줄 수 없다 하더군요. 그 후 사회로 치열하게 뛰어들자 싶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제약회사 영업부 사원으로 변모해 가정을 꾸리고 10년간 거주했던 그가 다시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은 1991년. 도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여성불교>의 편집주간을 맡기 위해서였다. 그 와중에 방 사장은 1993년 ‘화남’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사 등록을 하게 된다. 도선사에서 수학하던 시절 스승 도광 스님이 그에게 지어준 법호가 바로 ‘화남’이었다. 출판사 등록은 당장 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불교 서적을 펴내는 일을 할 것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대원(大願)’이었다.

>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신념으로 출판 시작
> 불교계·문단 등 폭넓은 인맥·추진력이 재산”

화남출판사에는 이런 방 사장의 삶과 의욕은 물론 불교신자로서 끊임없이 정진해가는 그의 행로, 바로 그것이 녹아있다. 그래서 화남출판사는 곧 ‘방남수’라는 개인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본질과도 같을 터다. 그러면서 불자들에게 그가 몸담았던 불교집안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채널도 된다.

청담 스님과 같은 삶을 꿈꾸던 방 사장이었기에, 청담 스님에 대한 지극한 경애는 출판사를 시작하며 곧바로 나타났다. 처음 만들어 낸 책이, 청담 스님의 법문을 모은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였다. 요즘도 청담 스님은 그의 정신에서 떠나지 않는 스승이다.

그런 인연 때문인지 화남출판사에서 만들어낸 불서는 일정부분 ‘청담’에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청담 스님 관련 책만 펴낸다면 출판사를 차린 의미가 없다. 요즘 그는 해외 불서와 다소 가볍게 다가가는 불서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낸 책이 수자타의 <관(觀)>이다. 시처럼 짧게, 삽화를 넣어 쉽게, 글씨는 크게, 그러나 불교의 메시지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방 사장이 요즘 고민하는 점을 그대로 담아냈다.

“개신교는 <성경>을 끊임없이 시대와 함께 변모시켜 왔습니다. 불교역시 ‘화석’처럼 굳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화남출판사가 걸어야 할 길이고요.”

그는 문단에서도 발이 넓다. 김지하 · 현기영 · 박완서 등의 쟁쟁한 문인들과 교류하며 이들의 책을 펴낸다. 문득, 불서를 만들 시간에 소위 잘나가는 작가들의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만들어 내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방 사장은 절대 불교를 놓을 생각이 없다. 그는 “앞으로도 1년에 5권은 불서를 만들겠다는 각오”라고 다부지게 말한다.

화남출판사를 방문하면서 이 출판사의 색깔은, 말하자면 ‘강렬한 붉은 색’이 아닐까 싶었다. 그 만큼 활동적인 방 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사찰 부도를 돌아보고 내용을 제대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겠지만 불자라면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고 제대로 된 출판물로 만들어내는 것을 숙원으로 삼겠습니다.”

글 · 사진= 김강진 기자

화남출판사 불서 BEST 15

순위	책 이 름	저자	출판년도
1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청담 지음, 혜성 엮음	2002
2	부처님의 지혜	강병호	2003
3	마음동자	청담	2003
4	도란 무엇인가	도우	2003
5	마음꽃다발	혜자 지음, 공광규 엮음	2003
6	관	수자타 지음, 김문호 옮김	2003
7	수레바퀴 앞에서1, 2	백금남	2004
8	아! 청담	청담	2004
9	비구니	김정은	2004
10	101가지 선 이야기	폴렙슨 외 지음, 김문호 옮김	2005
11	마라난타	민희식	2005
12	10 · 27 법난의 진실	유응오	2005
13	원효대사1, 2	이광수	2006
14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	영암 지음, 원혜 엮음	2006
15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혜자	2006



볼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법화경

운허 | 동국역경원 | 1990년

이학송(남양주 광동중학교 교장)

모든 사람에게 부처 지혜 얻게 해

지구 곳곳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쓰나미’와 같은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 말세론과 인류 위기설 등이 심심찮게 회자된다. 미래세계 가상현실을 그린 ‘터미네이터’나 ‘스파이더맨’ 시리즈 같은 영화 속에서도 인류의 위기가 잘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절대적 절망 앞에서도 정의의 주인공들이 위기를 극복해나간다. 영화 ‘제5원소’에서는 지수화풍 4대 원소에 인간의 사랑이 합쳐져서 악을 선으로 바꿈으로써 인류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메시지는 과연 어디에 숨어있는 것일까?



불교사상의 집대성 불교공부의 지름길
‘법화경’보며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

문득 <법화경>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모든 사람에게 부처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인 <법화경>은 악(惡)을 본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오탁(五濁)이 극에 달한 악세라 해도 그 악이 크면 클수록 부처가 출현하여 악을 물리친다고 예언하고 있다. 어떤 악(惡)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부처님이 나타난다니 얼마나 큰 희망이요 기쁨인가. 종말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류가 읽어야 할 구원의 메시지다.

동국역경원 근무시절 종일 한글대장경을 읽을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그중에서도 <법화경>과의 만남은 또 다른 세상으로의 진입이었다. 운허 스님이 번역한 <법화경>(동국역경원)은 그야말로 불교사상의 집대성이라 불교공부의 지름길이다. 원래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필자도 <법화경>을 읽으면서 자신감으로 가득차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됐다.

그렇다면 수많은 불자들은 왜 <법화경>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한자경전 독송에 젖어 내용보다 외는 공덕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요 의식이나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독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뜻을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경전을 읽지 않고 뜻도 모르면서 한자로 독송하는 잘못된 풍토 때문에 말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약초유품’의 가르침을 되새겨본다.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그들의 종류와 성질을 따라서 자라고 크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나니, 비록 한 땅에서 나는 것이며 한 비로 적시는 것이지마는, 여러 가지 풀과 나무가 저마다 차별이 있느니라(약초유품, 145쪽).

그리고 세상사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가르침을 읽어본다.

“…관세음보살마하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일컬어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시무외자)’라고 하느니라(관세음보살보문품, 381쪽).”

모든 중생에게 고루 존재하는 불성(佛性)을 깨우쳐주는 <법화경>은 일곱 가지 비유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가 하면, 일승 · 열반 · 인과 · 불성 · 인욕 · 오계 · 방편 · 전법(傳法) 등 이 시대를 사는 불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가르침을 다 담고 있으니, 가까이 두고 읽고 또 읽어야 할 책이다. 세친이 <법화경>의 별명으로 최상법문(最上法門)이라 한 그 뜻을 새기며.

정월방생 및 성지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 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사전예약)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본 종단에서는 석가세존의 자비사상바탕으로 수행정진에 힘쓰는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재)한국불교 중흥교원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자격
◎ 타종단에서 사미계 이상 수지한자
◎ 법당에 본존불(석가모니불,아미타불,약사여래불)을 모신 법당이어야 함

※본 종단에서는 무속인은 일체등록을 불허합니다.

▫ 사찰등록서류
◎ 입종 신청양식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증사본(앞뒤) 1매, 승려증 사본 1매,
◎ 종단 간부 소임을 맡을분은 자기소개서 1부 제출

※행자모집(스님이 되고자하는분) : 일체 교육비 없음(6개월간 무료 교육) 스님 양성
※동자모집(불우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

입 종 비 : 일십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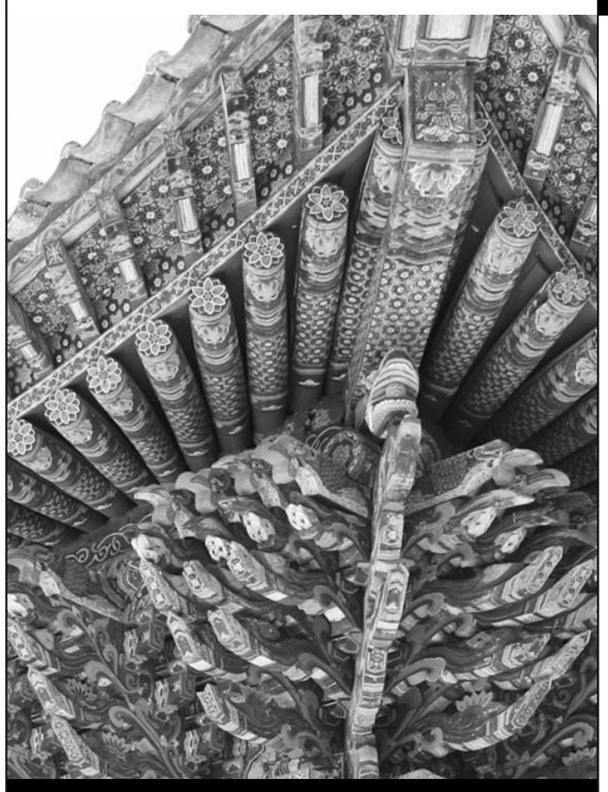
▫ 유관단체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세계불교무술총연합회,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세계불교고승연합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본 종단 입종후 종도연수교육 수료한후 승려증을 발급합니다.
※본 종단은 강원 및 율원 선원 불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범음범패 이수 받으실분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고원사
TEL : 054)382-3363,3397 / FAX : 054)383-5005 www.gowonsa.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약사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 2대
- 스님 서재방, 종무실, 대중공양실, 방사 2칸, 후원 5평
- 각 방마다 전기판넬 설비
- 시설 무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시설비 5천만원, 보증금 절충가능

010-2039-5288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가액 : 총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 305평(전부 대지)
- 건물 : 2동(법당, 요사)
- 가액 : 내방 후 결정

011-9638-8229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원동면 불사한지 6개월 된 신축사찰
- 대지 : 약100평
- 대웅전 약30평, 요사채1,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지하수 개발사용 연못조경완벽, 야외 산신각
- 스님 건강상 저렴한 적정금액으로 급 안내함
- 가액 : 1억 5천만원 (신협융자 3500만원 있음)

019-245-8929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포신도시
- 45평 법당, 사무실, 스님방, 대중방, 공양실 주차장있음
- 보증금3천, 시설비절충 건강상 급양도

011-763-10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임법당
- 대지 20평, 건물 20평
- 주위 아파트지역 등산로길
- 가액 : 7천만원
- 비구니스님, 보살님 적합 몸만 오시면 됨 (꼭 필요하신 분 절충가능)

018-363-6665

사찰 안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 사찰규모 완벽함

055)342-6341
011-864-6696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지하철 6호선 2번출구 (로터리 대로변)
- 평수 : 60평(4층 건물중 4층)
- 법당, 삼존불, 칠성단, 신중단, 산신각, 영가단, 각단탱화
- 거실, 공양간, 집무실 등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5천만원

010-6287-355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011-875-3513

사찰 안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도심 포교원

- 위치 : 서울 강동구 고덕동 (5호선 전철역 5분거리)
- 위치 좋음, 정남향
- 건평 20평, 주차장있음
- 천수천안,관세음보살,자장옥불,산신등
- 역학스님,보살님,법사 적합
- 보증금 1천만원, 월20만원 시설비 800만원(절충가능)

02)3426-1357
010-8726-135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2동
- 평수 : 100평, 밭 200평
- 법당, 삼존불, 각단탱화
- 등산로 입구
- 보증금(권리금 합)2500만원, 월35만원. 즉시법회가능
- 스님 종단일로 급 안내함

010-3900-1380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45평(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42만원 시설비 : 800만원

011-9552-397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 대지 : 330평
- 법당1, 방4, 창고
- 법당 집기일체 6500만원 몸만오시면 됨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7340-8765
054)733-7225
010-7484-688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46평
- 방2, 법당, 공양간, 최신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3천만원(절충가능)

055)337-8600
011-834-854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하단동
- 4층 100평 아파트 밀집지역
- 전세 1억원, 월13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6-475-3408

불교용품

- 위치 : 범어사
- 점포 : 20평 방1칸 비품비 : 8500만원
- 전세 2,000만원, 월25만원
- 부산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부터 10억이상

010-9798-1091
영주불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내요지
- 평수 : 2층 약 50평 방3, 주방, 화장실2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540-3313
043)291-3313

사찰 중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온양온천) 중심가 2층 건물중 2층
- 약 30평
- 금년 봄부터 서울시내까지 지하철 운행
- 법당, 상담실, 내실, 욕실, 거실, 창고 구비
- 보증금 300만원(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생활편리, 즉시법회가

010-6374-0034

사찰(급)분할 양도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대구에서 40분거리 국도변)
- 대지 600평, 별도 국유지 200평 사용가 건평 80평, 법당 25평
- 삼존불, 방7, 주차장 완비 노인요양원 허가신청 해 놓음
- 계약 후 불사하여 분할 지불도 가능한 좋은조건
- 돌할배 법사와 함께 사찰에 계실 비구 ·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인수금 : 2억5천만원 (융자 9700만원)

053)471-3123
017-501-231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 700년 터 고려말기
- 총평수 : 1만여평, 임야 24,099㎡
- 농림지역, 종교부지 9,620㎡(3,000평)
- 법당 15평, 삼성각 9평, 기도실 9평, 요사채 47평, 범종각(530관), 등창고 6평
- 미륵존불 10자, 염불종(30관), 금강문(일주문)
- 심야전기 보일러 진입로 개설포장, 주차완비
- 시내 버스 25분 거리
- 등기필 35311-00240(고유번호)
- 가액 : 3억3천만원(시설비 6억소요됨)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63)222-2555~6
011-672-2555
011-678-2556

사찰 안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5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제주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억7천
- 위치 : 충주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280평
- 가액 : 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 안내

임법당 안내 (30년생)

- 위치 : 경남 의령읍(10분)
- 총평수 : 3,000평 (밤나무산 포함)
- 법당(조립식)1동
- 요사 : 약 37평(방3칸,주방,욕실,마루)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만 연락요함
- 가액 : 6,000만원

- 위치 : 김해
- 부지 : 1200평
- 법당 : 27평(목조)
- 요사2동, 산신각, 주차장(200평)
- 좌우 청룡백호(뒷산 홍송 수백주)
- 동남향, 탁트인 전망
- 가액 : 7억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 상담 서비스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포교당 및 문화원 안내

- 위치 : 구로구 구로1동 구일역 10분거리
- 아파트 대단지 약8천세대(연예인아파트 포함)
- 법당 80평, 문화원 80평 ● 칠보, 물감, 한지, 공예 등
- 현지 활동중 ● 화장실, 샤워장 완벽시설
- 옥상 150평 전체 사용가능. 지하주차장 시설완비 도심선방 및 각종 문화사업 최적지임
- 가액 : 전세 1억, 월 200만원(관리비포함) 시설비 1억원(절충가능)

011-9631-0709 / 02-833-037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천시 부천대학 부천오피스텔 중간
- 3층 건물중 2층
- 평수 : 약4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10-5138-203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칠곡
- 부지 600평, 법당 30평
- 요사 25평
- 양도가 1억 5천
- 물맑고 산세 수려

010-3344-5249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1년)
◆초급과정
도량석, 종송,각단예불, 삼보통청, 각단불공 등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고급과정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요잡작업, 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 등

2.입 학 식 : 2008년 3월 6일
(수업-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상시모집)
8.연 락 처 : 053)857-4339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충북 / 충남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김해 / 마산 / 거제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광주 / 전남지역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전북지역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남해/고성/시천/함양/진주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오늘의 禪語

⑥ 화두·참구법 누가 만들었나

오조 법연의 '무자화두'가 시초

대혜종고 스님 무자화두 연구 참선수행법으로 체계화
무자화두 참구법은 우리나라 선원에서도 그대로 계승

 # 화두의 역사 : 누가 처음 화두를 만들었나?

최초의 화두는 '무자화두(無字話頭)'입니다. 무자화두 이후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화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자화두'를 개발한 분은 간화선을 대성시킨 대혜종고(大慧宗杲, 1088-1163)의 노사(老師, 할아버지뻘 되는 스승) 오조법연(五祖法演, 1024-1104) 스님입니다. 그는 최초로 조주 선사(趙州, 778-897)와 신참승 사이에 오고간 '무자공안'(무자를 둘러싼 법담) 속에서 '무(無)'라는 한 글자를 발췌, 화두화 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에게 참구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처음 화두를 개발한 사람은 오조법연이지만 그것을 하나의 참선수행법으로 체계화하여 대성시킨 스님은 역시 손제자인 대혜종고 스님입니다. 그는 오조법연이 시작해 놓은 무자화두를 본격적으로 연구, 보완하여 중국 천하에 정착시켰습니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狗子無佛性)"에서의 '무(無)'가 당당한 화두로 등장하여 간화선이 탄생하게 된 것은 조주선사 사후 약 200년 만의 일입니다. 이것을 간화선(看話禪, 화두를 참구하는 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두가 탄생한 것은 역사적으로 대혜 스님이 활동하던 1100년대이고, 화두 참구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비슷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등록> 등 선어록에 등장하는 옛 선승들의 선문답을 바탕으로 '간시궐' '마삼근' '정전백수자' 등 많은 화두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화두는 모두 1700여 종이나 됩니다. 이것은 선의 역사서 <전등록>(저작 연대 1004년. 저명한 선승의 생애를 기록한 책)에 올라 있는 1701가지에 달하는 선승들의 오도(悟道) 일화에서 비롯된 숫자로, 여기에 올라 있는 선승들은 모두가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중 대혜 스님이 중시한 화두는 '무' '간시궐' '마삼근' '정전백수자' '일구흡진서강수' '동산수상행' 등 6~7종입니다. 대혜 스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무자화두'가 최고라고 역설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가 한 글자로서 참구하기가 좋고 또 제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분석하려고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생긴 화두로 '이뭣꼬'가 있습니다. '이뭣꼬'의 원문은 '시심마(是甚麼)'로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형구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최근 '이뭣꼬'가 화두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으나 일단 1700가지 속에 들어 있는 전통적인 화두는 아닙니다. 지면상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 화두 참구방법은 누가 만들었나?

화두 참구를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방법을 대성시킨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혜 스님입니다. 그렇다면 화두 참구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 역시 대혜 스님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저서 <서장(書狀)>에서 10여 가지에 달하는 참구방법을 성문화시켰습니다. 이것을 '무자화두 참구법' '무자화두 십종병(無字話頭十種病,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데 있어서 열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 '무자화두 십종간병(無字話頭十種揀病,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가리는 방법 열 가지)' 또는 '구자무불성화 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 화두를 참구할 때 주의사항을 논한 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화두 참구법에 대한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서장(書狀)>이나 <무자화두 간병론>등에는 "000을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이유는 밝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천 년 전에 썼던 한문 문장을 우리말로 정확히 알기란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선승 진각국사 혜심(慧諶, 1178-1234) 스님이 지은 <구자무불성화 간병론>에서는 다행히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구자무불성화 간병론>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참고로 진각국사 혜심은 우리나라에 간화선을 도입시킨 보조국사의 직제자로서, 그의 법을 이어 선을 정착시킨 분입니다).

그런데 대혜 스님이 제시한 화두 참구법은 모든 화두에 대한 참구법이 아니라 조주의 '무자화두'에 대한 참구법입니다. 무자화두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 무자화두 참구법은 모든 화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두란 모두 같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원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자화두 참구법 10종속에는 당시 참선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병폐가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체 사량 분별심을 갖지 말라. 목적의식 없이 멍청하게 앉아 있지 말라. 문자적인 탐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자화두 참구법 10종은 15회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자식 사랑 초월 아라한과 성취

아들의 냉정한 말에 집착의 뿌리 뽑아
애착 내려놓자 단번에 깨달음 경지에

❻ 꾸마라 까샤빠의 어머니

부처님 재세시, 꾸마라 까샤빠의 어머니는 어릴 적에 이미 세상사의 무상(無常)을 느끼고 출가하려고 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남편의 허락 하에 출가했지만,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승원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공개 조사를 통해 출가 전에 임신한 것이 증명되어 승원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이후 까샤빠를 낳았다.

왕의 도움으로 왕자들과 함께 자라난 까샤빠는 곧 자신의 출생인연을 알고 출가하였다. 까샤빠 비구가 출가한 지 12년이 흘렀을 때의 일이다. 그때까지도 어머니 비구니는 이별한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젖은 얼굴로 탁발을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리에서 까샤빠를 만났다. 어머니는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짖으며,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그만 넘어져 가슴에 우유를 쏟아 옷이 젖고 말았지만, 일어서자마자 아들의 팔을 꼬옥 잡았다.

까샤빠 비구는 '만약 어머니가 내게서 친절한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이 여인에게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무엇 하는 짓이오? 그대는 수행자로서 아직도 인간적인 집착을 버릴 수 없단 말이오?"

이 말에 놀란 어머니는 '아~, 아들이 도둑같이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되물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방금 뭐라고 말했느냐?"

아들은 똑같이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속으로 한탄했다. '아, 너 때문에 나는 12년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는데,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굳어있구나. 왜 내가 너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 대한 집착을 뿌리 뽑고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이 일화는 마치 한편의 공안(公案)을 보는 듯 하다. 자식의 차가운 말끝에 모든 애착을 내려놓고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철저히 갈애(渴愛)하는 '그 마음을 항복받아(降伏其心)' 일체의 집착을 떨쳐낼 수 있다면 오랜 수행을 요하지 않고도 돈오(頓悟)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문염송>에는 이 일화와 관련된 '방하착(放下著)' 공안이 등장한다.

부처님 재세 시, 흑치범지가 신통력으로 오동나무 꽃을 양손에 들고 와서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였다. 부처님께서 그를 향해 "범지야 그것을 놓아버려라" 하니, 범지가 즉시 두 손에 든 꽃을 차례로 놓아버렸다. 그런데 다시 부처님은 "놓아버려라" 하셨다.

범지가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거늘 무엇을 놓으라 하시나이까?" 하니, 부처님께서 "내가 너에게 놓으라 한 것은 꽃을 놓으라 한 것이 아니고, '밖으로 6진과 안으로 6근, 중간의 6식을 한꺼번에 놓아버리라(汝當放捨 外六塵 內六根 中六識)' 한 것이다. 놓아버릴 곳이 없으면 이곳이 네가 생사를 면한 곳이다" 하셨다. 범지가 그 말 아래 곧 무생법인(無生法忍: 나고 죽음이 없는 마음자리)을 깨달았다.

방하착은 주관과 객관, 생과 사, 고(苦)와 락(樂), 선과 악, 옳고 그름, 유(有)와 무(無) 등의 온갖 대립관념을 버리는 것이며, 버린다는 생각조차 비우는 것이다. 일체의 고정관념, 분별심, 망상, 사량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깨끗이 비워 무일물(無一物), 무소득(無所得)의 심경이 되는 것이 깨침의 핵심이다.

까샤빠의 어머니는 "5온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자아의식의 투영 없이 나와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무명(無明)의 식(識)을 지혜로 변화시킨 것이다. '전식성지(轉識成智: 식이 전변하여 지혜를 이룬다)'의 도리에 대해, 감산 대사는 "만약 '감정에서 일어나는 생각(情念)에 얽매여 멈춘다면 지혜가 인식(識)을 이를 것이고, 만약 생각 생각이 전변하는 곳에 마음이 얽매이지 않아 감정의 뿌리를 맺지 않으면 인식이 지혜를 이뤄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큰 선정에 머물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성우 객원기자

신행게시판

●마하보디선원 집중 수련법회=경주 마하보디선원이 2월 16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2시까지 8박9일간 집중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동참금은 회원 15만원, 비회원 16만원이다. (054)746-9750

●아헹가 요가 공개강의=아헹가 요가센터 청량선원이 서울과 대구에서 2월 공개강의를 개최한다. 강의는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스포츠문화센터와 17일 오후 2시 대구 사단법인 아헹가요가협회 본부에서 각각 열린다. 강사 현천 스님(서울 청량선원장)은 아헹가 요가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요가 디피카> <아헹가 요가> <아헹가 행법 요가>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또한 요가 지도자 과정 및 강사 재교육이 실시된다. 영남지역은 대구 본부에서 2월 23일 개강하고, 수도권은 3월 15일 서울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교육이 열린다. (053)981-3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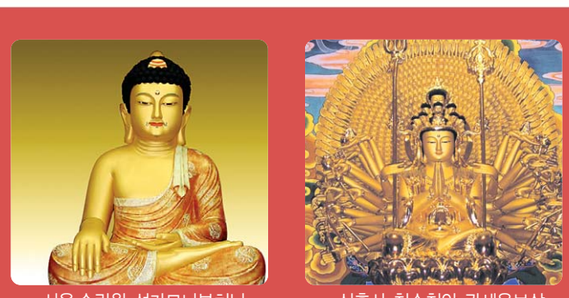
●보리수 선원 초보 및 중급 수행=서울 보리수 선원이 106차 초보 및 19차 중급 수행을 실시한다. 106차 초보수행은 2월 11~22일 오후 7시와 2월 18~22일 오전 10시에 각각 진행된다. 19차 중급 수행은 2월 23일~3월 1일 오후 7시에 열린다. 붓다락키따 스님과 빤야완따 스님이 수행지도법사로 나서 수행자들을 지도한다. 수행 보시금은 초보 수행 오전반은 7만원, 오후반은 13만원, 중급 수행은 7만원이다. (02)517-2841

●봉인사 2월 집중수행=남양주 봉인사가 2월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2월 15~20일 사마타 위빠사나 집중수련을 개최한다. 위빠사나 수행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사마타 수행 프로그램이다. 세면도구와 필기도구, 무릎덮개를 준비해야 한다. 22~24일에는 사마타 위빠사나 주말수련도 열린다. (031)574-5585

●호두마을 위빠사나 수행=천안 호두마을이 2월 15~17일 사사나 스님을 지도법사로 위빠사나 주말수행을 개최한다. 참가비는 6만원, 모집인원 50명이다. 22~28일 위빠사나 집중수행은 성오 스님을 지도법사로 열린다. 참가비는 14만원. 일과 동안 새벽 4시~밤 9시까지 행선과 좌선, 수행점검 인터뷰 등이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묵언, 마음챙김, 타인배려, 하심, 정숙, 알아차림, 1일 2식 등을 준수해야 한다. (041)567-2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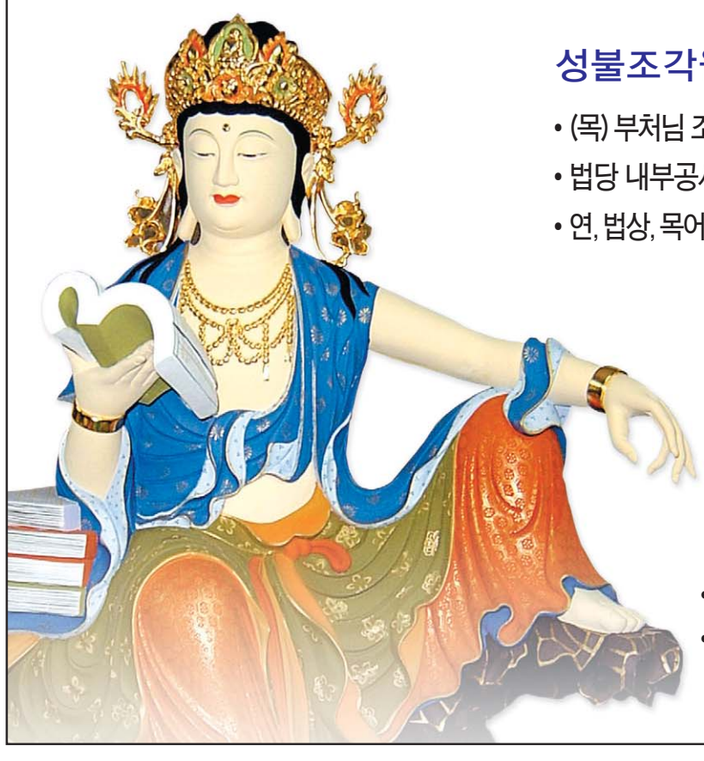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경남지사 011-588-8317



이집트의 고대 왕릉
피라미드를 읽다

무자년 벽두, 4인의 50대가 배낭을 메고 이집트로 향했다. 20대의 전유물인 배낭여행을 중년 사내들이 겁 없이 흉내 냈다. 큼지막한 배낭을 메고 이국의 거리를 헤매는 중년의 모습은 약간 딱하다. 어색한 차림, 어기적거리는 걸음걸이, 탈북자 행렬 같고 낯선 행성에 던져진 외계인 같기도 하다. 저마다 한두 가지 깨닫겠다는 각오, 새로운 모색을 통해 재충전하겠다는 속내는 서로 말하지 않았다.

나일강을 젖줄로 찬란한 고대문명을 일군 나라, 사막 한가운데 피라미드라는 불가사의를 축조한 나라. 염치는 소멸되고 몰염치가 들끓는 나라. 12시간 비행 끝에 수도 카이로에 도착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럽다. 연중 강수량이 0~20mm이니 먼지마저 칼칼 팍팍하다. 15일 만에 이집트 남북을 종단하는 강행군이다. 10~15시간씩 열차를 타고 거기서 먹고 자길 여러 번 반복하니 조급증이 사라진다.

이집트에는 찬란한 고대문명과 남루한 현실이 공존한다. 절대 권력의 흔적이 피라미드와 거대 사원으로 남아있다. 50대의 배낭여행에는 또 다른 보람이 있다. 지천명에 이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넉넉하다. 라면 한 젓가락일망정 상대의 그릇에 먼저 떠주는 지혜를 발휘한다. 인간이 동물로 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성과 본능은 동전의 양면이다. 동물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서로의 모습이 장하다. 위기 대처에 여유로운 것도 강점이다. 마차꾼이 엉뚱한 곳에 내려주고 가버려도, 열차를 놓쳐도 여유롭게 대처한다. 그보다 더 험한 세월을 거쳐 온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묵혀두었던 영어실력을 되살린 것도 소득이다. 고사 직전인 단어들이 날개를 달고 기억의 창고에서 퍼덕거리며 나온다. 기본영어가 진양조 가락으로 빗장을 열고나오니 이내 정통종합영어가 휘몰이 장단으로 춤을 춘다. 생존본능의 힘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머뭇거리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행이 주는 1차 선물은 자신감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다. 2차 선물은 겸손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배려다. 가족과 이웃을 더욱 살갑게 사랑하겠다는 생각, 금수강산에 태어난 고마움을 배낭 가득히 담아 돌아왔다.



1964년 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있다가 유럽 각국에서 3000여명의 전문가가 동원돼 이전한 아부심벨 신전.

'영원불멸의 꿈'은 유적으로 남고



인류문명의 불가사의 피라미드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으로만 보아왔던 피라미드가 가장 먼저 발길을 끌었다. 인간의 의식세계, 상상력으로부터 벗어난 존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상태를 불가사의(不可思議)라 한다. 그 말의 기원은 <화엄경>이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부처의 지혜는 허공처럼 끝이 없고 그 법(法)인 몸은 불가사의하다'라고 했다. 호사가들은, 피라미드를 NO.1 불가사의라고 규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집트 전역에는 90여 기의 피라미드가 있다. 그중 가장 크고 유명한 것이 카이로 부근 나일강 서안에 있는 기자지구 피라미드들이다. 이곳에는 거대한 피라미드 세 개와 작은 피라미드 네 개가 있다.

피라미드(pyramid)는 정사각뿔 모양의 고대유적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다. 그리스어로 '삼각형 모양의 과자'를 의미하는 '피라미스'에서 유래했다. 고대 중국,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앙아메리카 등지에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고구려 태왕릉, 장수왕릉도 피라미드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집트 기자지구의 피라미드가 대표 격으로, 고유명사로 굳어진 느낌이다. 피라미드는 장례와 제사를 위한 건축물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불가에서는 과보에 따른 환생을 믿지만 그들은 현세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다. 무덤이란 죽은 자가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활하는 공간이라 여겼다. 영원히 지속될 튼튼한 무덤이 피라미드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보관된 수백구의 미이라 중에 벌떡 일어난 이는 아직 없다.

피라미드는 고왕국(제3왕조~제6왕조) 창건 때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2700년 동안 계속 지어졌다. 제4왕조(기원전 2613~2498) 때가 피라미드 건설의 전성기였다. 기자 피라미드 역시 이 시기에 건설된 것이다. 기자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쿠푸왕의 피라미드이다. 거대한 크기와 복잡한 내부구조 등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힌다. 쿠푸왕은 스네프르왕의 아들로 당시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피라미드를 세웠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자료는 없다. 쿠푸왕의 뒤를 이은 카프라왕, 멘카우라왕도 기자에 피라미드를 세웠다.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제1피라미드(혹은 대피라미드), 카프라왕의 피라미드는 제2피라미드, 멘카우라왕의 것은 제3피라미드로 불린다.

피라미드는 독립구조물이 아니라 건축물 복합체의 일부였다. 사막 높은 곳에 구획된 경내에 자리잡은 피라미드 옆에는 장례, 제사를 위한 신전이 있고 둑길을 따라 내려가면 계곡사원으로 불리는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경작지 끝에 지어졌고 운하를 통해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집트에서 90여 기의 피라미드가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폐허더미로 변했고 부장품은 오래 전에 도굴되었다.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중에서도 피라미드 단지의 형태를 온전히 지니고 있는 것은 제2피라미드뿐이며 다른 피라미드의 부속건물은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왜 불가사의인가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원래 높이는 146.5m였으나 꼭대기 9m 정도가 떨어져나가 현재는 137m이다. (63빌딩의 높이는 249m이다) 각 변의 길이가



세계 최초로 전등록 1,700여 공안을 총평하고 시송한
바로보인 전등록 전30권의 출판비를 보시 받습니다.
바로보인 출판사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번역하고
공안 하나 하나마다 평창과 송을 붙인
바로보인 전등록을 전 30권으로 새롭게 출간합니다.
전 30권 출간비는 5천만원 내외인데 보시하시는 분은
바로보인 전등록 30권 각 권마다 기록되어져
세세생생 정법을 부촉하여 널리 알린 공덕이 기려질 것입니다.
또한, 법보시의 큰 공덕을 지으신 분들이
불보살님의 옹호와 가피력을 입어
모든 악연을 뒤집어 정법을 깨달아 구경성불할 인연으로
회향되기를 육조정맥선원 사부대중 일동이 천일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전화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011-264-3906 www.yjkukak.com



◆목재 골조 평당45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 180*180
다그라스목재도리 : 180*125
다그라스목재서까래 : 100*100
원목목재 상남: 150*125
특허 브라켓
※황토흙벽돌,내화벽돌,판넬등 시공가능
원목목조 20평형
원목목재기둥: 100×100×400
원목목재도리: 120×50
원목목재중간대: 70×50
특허 브라켓
◆조립식평상 골조 가격: 180,000 사이즈 : 2100×1800×400(mm) ※ 마루판은 별도 구매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폴리프로필렌 마루판 210×12(mm)
원목목재 마루판 120×20(mm) 방수 합판 4×8×1.5장
지구산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 품 목 부 가 세 별 도 전 국 대 리 점 모 집

"새는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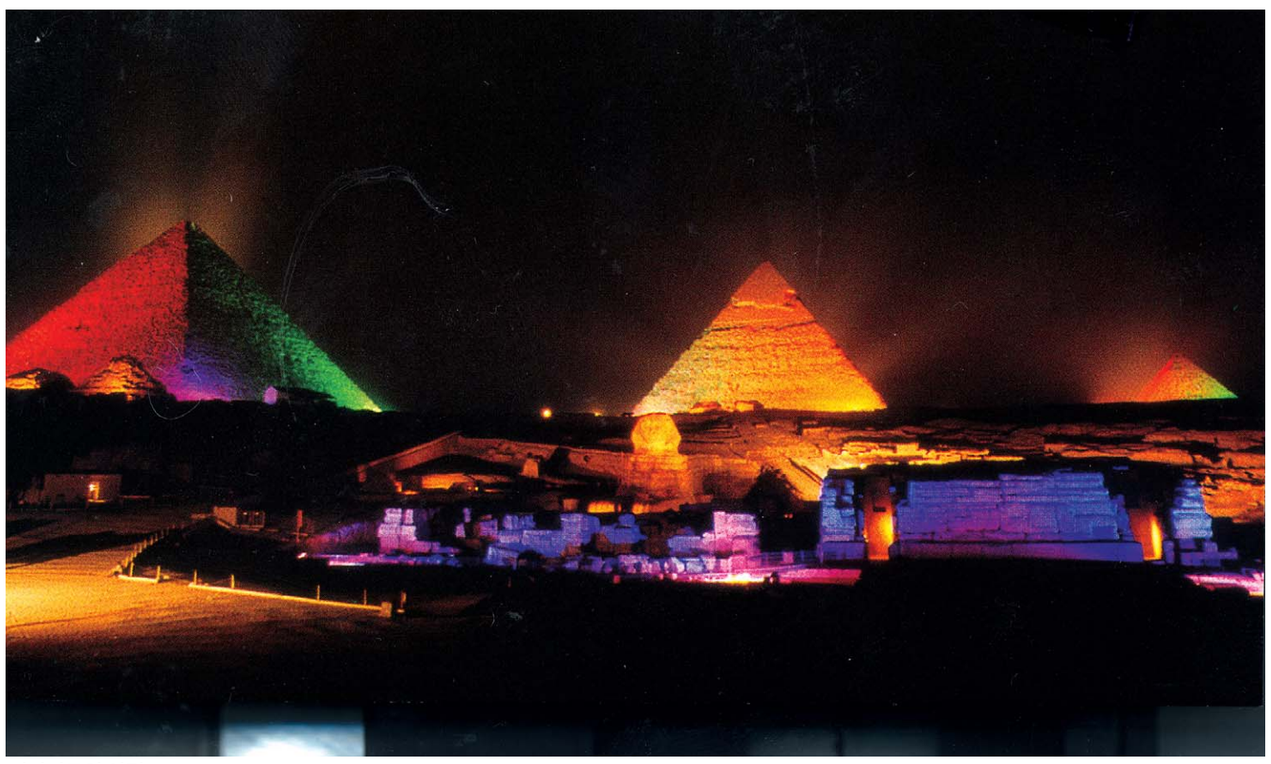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불가사의'도 제행무상 못 벗어나

248m, 경사면의 각도는 52도이다. 대피라미드는 약 5000년 전에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다. 신비론자들은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 건설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화성에서 온 외계인들이 외계와 연락하기 위한 송수신기지로 삼기 위해서 화성의 피라미드를 지구에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가사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몇 가지 추려보면 이렇다. 첫째, 부지 선정에 관한 신비다. 현대 건축가들은 100년에 15cm 정도 침강하는 땅은 고층 빌딩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한다. 미국 국회의사당은 200년 동안 12cm 정도 침강했다. 대피라미드의 돌무게를 합산하면 685만 톤이다. 그것은 5000년 동안 1.25cm 가라앉았다. 지진과 지반운동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1992년 이집트에 강도 6의 강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400여명이 사망하고 만여 명 부상, 수백채의 가옥과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나 피라미드 속에 있던 관광객들은 미동도 느끼지 않았다.

둘째, 피라미드 건설에 소요된 돌의 공급, 다듬는 문제도 불가사의하다. 쿠푸왕의 피라미드를 쌓는데 소요된 돌은 높이 1m, 폭 2m, 평균 무게 2.5톤짜리 돌 약 250만 개다. 이것을 약 1000km 떨어진 아스완 지역에서 가져왔다. 돌을 나르는 수송로를 만드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당시는 수레나 말을 이용한 수송방법을 모르던 시절이다. 지레나 굴림대, 밧줄이 운송수단이다. 그렇게 옮긴 돌을 연인원 10만 명이 20년 걸려 건설했다. 돌은 다듬는 문제도 불가사의하다. 기원전 2600년이면 청동기 시대다. 철제 도구가 없던 시절이다. 청동 연장을 사용하여 채석장에서 2.5~10톤 나가는 돌을 오차 없이 자르고 다듬었다. 왕묘실에 있는 돌은 무게가 40톤이나 되는 화강암이다. 불가능 혹은 불가사의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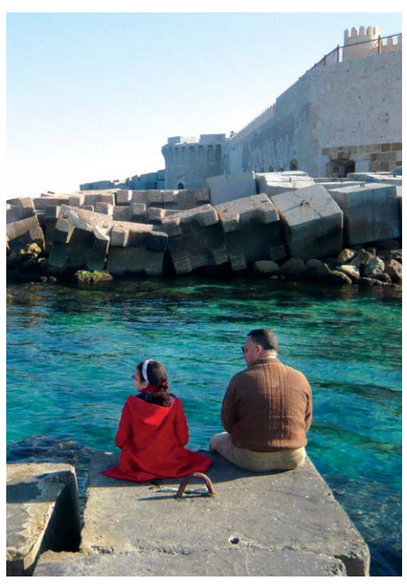


피라미드의 야경. 왼쪽부터 멘카우라, 카프라, 쿠푸왕의 피라미드.

불리한 기후·지형적 조건에서도 찬란한 문명 창조
유네스코, 아부심벨 신전 수몰 위기서 구제하기도

이집트 문명의 젖줄, 나일강

이집트는 국토의 한 가운데를 나일강이 남북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집트 여행은 편하다. 나일강을 따라 모든 유적이 늘어서 있다. 나일강변을 벗어난 동서부 지역은 모두 사막이다. 도시와 문명은 6600km인 나일강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6000만 명의 인구도 나일강변에 살고 있다.



일 년 내내 거의 비한방울 내리지 않고 국토의 95%가 사막인데 어떻게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을까. 나일강 상류인 아프리카 지역의 풍부한 강수량 덕분이다. 이집트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지만 나일강은 언제나 푸르게 넘실대며 흐른다. 아프리카 지역에 우기가 되면 나일강은 범람한다. 6월말경이 가장 심하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주변 토지는 구획이 사라진다. 측량 기술이 발달한 것은 나일강 범람 때문이다. 범람이 끝나면 측량을 해서 내 땅, 네 땅을 다시 구분한다.

그러면 나일강의 범람은 재앙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축복이다. 상류에서 쓸려온 유기질이 풍부한 흙더미가 그대로 침전되어 거름이 필요 없는 옥토가 된다.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농토는 적당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물을 주지 않아도 풍년이 보장된다. 홍수 때 한강, 낙동강의 범람으로 수해의 추억이 있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축복이다.

나일강의 범람은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1902년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댐이, 1971년 더 위쪽에 아스완 하이댐이 건설되었다. 댐에 가두어진 물은 거대한 호수를 이루었다. 나세르호이다. 댐을 만들면 수몰지구가 생긴다. 수몰예정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정든 땅을 버리고 이사를 가야한다. 고대 유적 또한 예외가 아니다. 수단 국경 근처에 있는 람세스 2세의 유적인 아부심벨이 대표적인 수몰 유적이다.

아부심벨 구하기

아부심벨 지역에는 위대한 전사이자 건축가인 람세스2세가 지은 두 개의 대신전이 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신전이고 다른 하나는 왕비 네페르타리와 사랑과 미의 여신 히토르를 위한 신전이다. 람세스2세는 영화 <십계>에서 율 브리너가 역을 맡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집트의 파라오(왕)다.

람세스 대왕이 건설한 아부심벨 신전은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하자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유네스코는 인류 문화유산을 구하기 위해 1960년 범세계적인 운동을 전개해 1964년 유적을 구출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대규모 작업을 위해 이집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서 모인 3000명의 전문가로 구조팀이 구성되었다. 신전의 조각과 장식을 2000개의 조각으로 잘랐다. 해체된 돌의 한 개 무게가 10~40톤이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복원작업은 5년이 걸렸다. 소요된 비용은 4000만 달러였다. 새 신전은 물이 차지 않는 200m 위 새로운 터에 완벽하게 복원됐다. 어림잡아 석굴암의 천배쯤 되는 규모의 석굴신전을 훼손 없이 옮긴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불멸의 욕망을 채우고자 거대한 신전 피라미드를 세웠고 후손들은 역사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불가사의'의 유적은 과거로부터 미래에까지 인간의 욕망을 대변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허공으로 돌아갈 욕망이고 역사가 아니겠는가. 굳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의 도리가 아니어도 욕망의 역사와 우주 순환의 질서는 영원히 함께 갈 수 없을 것이므로.

여행 야담

여정은 나일강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코스를 잡았다. 카이로에서 밤기차를 타고 15시간 걸려 아스완에 도착. 아부심벨까지는 사막 한가운데로 난 도로를 따라 버스로 4시간. 다시 아스완으로 돌아와서 배를 타고 2박3일 나일강 크루즈로 룩소르로 가는 도중 수시로 배에서 내려 콤옴보, 애드프, 에스나를 들렀다. 룩소르에서 기차를 타고 다시 카이로로, 거기서 버스로 수에즈, 알렉산드리아 등을 둘러보았다.

글·사진=이우상<소설가>

클레오파트라의 사랑과 야망

19 63년 만든 미국 영화 '클레오파트라'. 엘리자베스 테일러(클레오파트라)와 리처드 버튼(안토니우스)의 명연기로 스크린을 달구었다. 그녀는 이집트가 로마에 병합되기 전까지 이집트를 다스린 마케도니아 왕조의 마지막 군주다. 훌륭한 군주로서의 명성보다는 빼어난 미모와 격렬한 사랑의 화신으로 그녀를 기억한다. '육감적인 입과 단호한 턱, 부드러운 눈매, 넓은 이마, 높은 코를 가졌으며 목소리는 줄이 많이 달린 현악기가 울리는 음색이었다(그리스 전기작가 플루타르크).' '그녀는 당대 가장 위대했던 로마인 두 사람,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사로잡았지만 세 번째 사람 때문에 파멸했다(로마 역사가 디오 카시우스).'

로마의 장군 시저는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집트를 손에 넣고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다. 영웅 기질을 타고난 시저는 이집트를 평화롭게 통치하지만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음모를 꾸민다. 시저의 아들 부루투스는 시저를 제거하려는 음모에 가담한다. 아버지를 배신할 운명을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인다. 시저는 뛰어난 통솔력을 가졌지만 자신을 배신할 세력이 바로 자신의 부하들과 아들이라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다. 결국 부루투스는 시저에게 칼을 꽂는다.

시저의 죽음으로 이집트는 혼란에 빠진다. 이를 평정하기 위해 안토니우스가 나선다. 재치와 용기, 카리스마로 무장한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혼란을 수습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사랑까지 얻는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변 국가와의 마찰과 부하들의 반란음모로 안토니우스는 몰락한다. 이집트는 다시 혼란에 빠진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매력과 정치력을 모두 발휘했음에도 후원할 상대를 2번이나 잘못 고른 셈이다. 실권은 옥타비아누스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금 매력을 발휘해 옥타비아누스를 유혹했지만 실패한다. 파멸의 징조를 간파한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안토니우스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살한다. 왕가 대대로 내려오는 장신구들을 모두 걸친 채 황금침대에 누워 이집트 왕가의 상징인 코브라에 물려 죽었다. 클레오파트라다운 화려한 죽음이었다. 22년간 여왕으로 군림하다 39세에 죽었다. 소원대로 그녀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혔다. 그들의 무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야망과 사랑을 온몸으로 실현한 그녀의 뒷모습은 허망하기까지 하다.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SMD,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2>
(修習止觀坐禪法要)

제3장 기개(棄蓋) ①

청정한 본성 가리는 '五蓋'

所言棄蓋者 謂五蓋也 一棄貪欲蓋 前說外五塵中生欲 今約內意根中生欲 謂行者端坐修禪 心生欲覺 念念相續 覆蓋善心 令不生長覺已應棄

제3장 기개(棄蓋)에서는 오개(五蓋)를 버려야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개'는 혼탁한 번뇌가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가려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는 번뇌의 또 다른 명칭인 것이다.

오개는 탐욕개(貪慾蓋),진에개(瞋恚蓋),수면개(睡眠蓋), 도회개(掉悔蓋), 의개(疑蓋)등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번뇌법 때문에 우리의 자성청정심이 가려져 밝은 지혜가 환하게 드러나지 못한다.

앞에서 오욕을 꾸짖었던 것은 밖의 오진경계에 대한 욕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위한 것이었고, 지금 여기에서 오개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외부 오진경계에 대한 욕구의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의 의식은 청정해지고, 의식이 청정해지면 올바르게 도를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오개 가운데 첫 번째 '탐욕개'는 앞에서 말했던 외부의 오진을 대상으로 탐욕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오근(內五根)이 밖으로 외오진(外五塵)과 마주할 때 그에 대해서 일으키는 탐욕과 집착이다.

지금은 내적으로 의근(意根) 가운데서 밖으로 오진경계에 대해서 일으키는 탐욕의 편에서 하는 말인데, 목전의 오진은 우리 의식 속에 그림자로 나타나 그 실체없는 그림자의 과거모습을 추억할 뿐만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미리 분별한다.

비록 내오근이 외부의 오진을 부여잡고 분별없이 있는 그대로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마음속으로 의식에서 망상이 무더기로 일어나 이로 인해 목전의 오진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탐욕개이다. 그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탐욕이라고 말한다.

수행자가 외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서, 다시 말해 구업과 의업을 고요하게 잠재운 상태에서 외적으로 위의는 갖추었다 해도 마음속에 망상의 의업이 어지럽게 일어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면 탐욕심을 일으키거나, 혹은 과거 보았던 미모가 단정한 사람을 추억하면서 그를 잊지 못하는 등의 사량분별이 염념이 상속하면서 단절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면 마치 폭포수와 같아서 전념과 후념이 한 찰라도 휴식하지 않는다.

이 같이 외적인 위의는 갖추었다 해도 내적으로 의식을 조복받지 못하면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착한 마음이 망상 속에 침몰하여 지혜의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실로 수행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장애가 된다.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알았다면 그 즉시 탐욕을 제멸해야만 한다 .

옛사람들은 이를 두고 말하기를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망념이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더딜까봐 염려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일찍 깨닫고 급히 버려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所以者何 如術婆伽欲心內發 尙能燒身 況復心生欲火 而不燒諸善法 貪欲之人 去道甚遠 所以者何 欲爲種種惱亂住處 若心著欲 無由近道

탐욕의 망상은 해로움이 지극히 광대하다. 예를 들면 인도에는 술바가라는 음란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내적으로 음욕심이 발동했을 뿐인데도 그 불길로 인해 자기의 몸이 타서 무너졌다고 한다. 하물며 마음속에서 만일 마음이 탐욕심으로 애착을 일으키게 된다면 올바른 도로 진수할 길이 없다. 그 때문에 계송에서는 말하기를

탐욕은 사나운 물과 같아
반야 나루터를 침몰 시킨다네
보리도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탐욕을 버리고 진심을 보호하게나

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탐욕의 번뇌가 올바른 도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탐욕심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如除蓋偈說
入道慙愧人 持鉢福衆生 云何縱塵欲 沈沒於五情 已捨五欲樂 棄之而不顧 如何還欲得 如愚自食吐 諸欲求時苦 得時多怖畏 失時懷熱惱 一切無樂處 諸欲患如是 以何能捨之 得深禪定樂 卽不爲所欺

'입도참괴인(入道慙愧人)'이라고 한 이구절은 도를 닦는 수행인이라면 반드시 크게 부끄러운 마음과 공포심을 일으켜 중생이 미혹 속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생사를 끝내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수행인이라면 도업을 일찍 성취하도록 노력하여 반드시 탐욕을 버린 상태에서 발우를 지녀 일체중생에게 복전과 이익이 되고 끝내는 삼계제불에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오욕과 육진에 끝없는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가.

오욕 전체는 털끝만큼도 되돌아보지 않는 체 버려야만 되는데, 어찌하여 오욕경계를 얻지 못하는 것을 다시 탐욕으로 구하려 하는가.

이런 수행인은 미혹한 가운데 갑절이나 미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를 비유하자면 어리석은 사람이 음식을 먹었다가 다시 토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어찌 불쌍하고도 가소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탐욕을 일으킬 때는 괴롭고, 욕구를 많이 충족할 때는 공포스러우며, 얻었던 욕구를 잃을 때는 번뇌가 뜨겁게 타오른다. 모든 중생을 살펴보라. 그 어느 누구도 오욕을 탐애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탐욕스러운 사람은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하고, 먼 바다를 항해하기도 하며, 때로는 풍찬노숙을 하면서까지 탐욕을 추구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분주하게 오락가락 한다. 설사 자기의 욕구를 채웠다 하더라도 공포와 두려움이 많고, 얻었던 물건을 다시 잃어버릴 때는 그 마음에 근심과 번뇌가 더욱 가득할 것이다.

이를 따라 관찰해보면 삼계 내에서는 쾌락을 즐길 곳이라고는 한 치의 땅도 없다. 모든 욕구의 환란이 이와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탐욕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심오한 선정의 즐거움을 체득하면 탐욕의 망상에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삼계 안에 쾌락을 즐길 곳이라곤 하나도 없어
선정 즐거움 체득땐 탐욕에 속임 당하지 않아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무명과 악견의 상호관계

최초로 일으키는 무명은 사리(事理)에 미혹하여 어두운 상태이고, 악견은 미혹한 사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굳게 집착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명은 아직은 소극적인 상태이고, 악견은 좀 더 적극적인 상태로 진일보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무명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무명에 의한 악견 때문에 미혹했던 사리에 대해 굳게 집착하여 끝내 올바른 근원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무명은 모든 번뇌의 근원이지만, 악견 또한 모든 번뇌의 의지처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악견의 집착 때문에 '탐진치만의'라는 근본번뇌를 일으켜, 이 때문에 올바른 이치가 가려지고 악한 행위는 이로 인해 더욱 치연하게 타오릅니다.

일체 악업의 근원은 번뇌

일체 모든 행위, 즉 업의 근원은 사리의 실체를 미혹한 번뇌가 근원이며, 근본번뇌는 모든 악업을 일으키는 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유정들은 탐심의 번뇌 때문에 음행 · 도적질 등의 악업을 짓고, 진심 때문에 살생의 악업을 지으며, 치심 때문에 삿된 견해가 일어나고, 교만심 때문에 자신의 악업에 안주하면서 개과천선을 하지 않으며, 의심 때문에 올바른 도리를 따르지 않으며, 악견 때문에 다시 탐심 · 진심 등 일체의 번뇌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더욱 치성하게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악업이 간단없이 상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악업도(十惡業道)가 그 중 어느 것도 번뇌의 미혹을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느 것도 번뇌를 따라서 악업을 성취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의 탐욕 · 진심 · 어리석음 · 교만 · 의심 · 악견의 미혹 등이 원인이 되어, 이것이 다시 국가 간의 살생 · 도적질 · 음행 · 망어 · 양설 · 기어 · 탐욕 · 진심 · 삿된 견해 등 모든 악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혹의 번뇌에 따라서 모든 악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고통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혹업고'의 인과윤회사상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간의 실상, 즉 '혹업고'의 인과관계는 이같이 참혹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정들은 이러한 이치를 분명히 알고, 올바르게 실천 수행해야만 이고득락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신 수 비 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대행스님

선과 악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그 속에서 활짝 벗어나라!

여러분을 작년에 만나 뵙고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또는 작년이라는 말을 해놨고, 올해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면 질서가 문란하겠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질서와 교양, 교육, 충성, 효도, 의례의식이나 모든 천(天) · 지(地) · 인(人) 삼재(三才)의 그 질서적인 자연의 법칙, 이러한 문제들을 새삼스럽게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더욱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화엄 세계를 저렇게 (뒤편의 목탱화를 가리키시며) 해놓은 것은 천 · 지 · 인 그 삼재의 상세계 · 중세계 · 하세계를, 세상 살아나가는 도리를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 영화를 봐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죠. 그거 실감하셨습니까? 이렇게 구르든 저렇게 구르든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 죽었어도 또 되살아나. 그게 무슨 원리인가? 주인공이 없다면 마땅히 이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 또 살림살이에서도 자기의 마음이 없으면 육체가 돌아가질 않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 아무리 똑똑하지 않고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뛰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주인공이 살지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어, 영화를 봐도. 여러분이 아마 실감하시리라고 믿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 주인공을 진실히 믿습니까?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믿습니까?

대중: 예.

스님: 그 믿는 마음은 '주인공, 이런 걸 해주십시오, 저런 걸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마음에서 일차적으로는, 한 말을 되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일차적으로 내가 믿는다,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을 거기에다가 다 놔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악과 선 일체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을 수가 있다면, 바로 놓고 난 뒤에, 양면을 돌아가면서 다 놓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 거기서 생산이 되느냐? 생각 내는 마음입니다. 믿고 놓아서 생산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천 리를 갈 수도 있고, 한 찰나에 저승에 갈 수도 있고, 미래에 갈 수도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여기 앉아서 집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와 더불어 이 세상에 광대무변하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근본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 마음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근본을 알 수가 없어. 또 이 세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을 알 수가 없어. 근본입니다! 내놓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근본자리에서 광대무변하게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까닭에 여러분은 "아이구, 이렇게 놓고 가는데도 안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안되는 것도 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도 놓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진짜로 믿는다면 다 거기에 진짜로 믿고 놓고, 마음을 잘 낸다면 일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음을 잘 내! 꿈을 꾸고도 자기가 언짢게 생각을 하고 '아이구, 꿈 잘못 꿨구나. 이거 언짢은 꿈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언짢게 재앙이 옵니다.

또 조상에게도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상들에게도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 형제가 있다면 형에게도 자식이 있고 나한테도 자식이 있고 동생한테도 자식이 있겠죠. 형에게 자식이 있으면 형의 제사는 그 자식에게 밀어 던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났나. 참 감사하구나.' 하고서 그 날을 맞이해서 심중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제삿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덮어놓고 착을 붙일 거나 안 붙일 거나 다 붙여 돌아가서는 집안의 가환을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내는 걸 그냥 우습게 보고 하루 살면서 그냥 그냥 쉽게 생각 낸다고 그러지마는 보이지 않는 그 자체에서는, 생각 한 번 내는 데 보이지 않는 물질 없는 물체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도리를, 그렇게 마음 한 번 내는 게 귀중하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는 그 생산처가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심봉은 그냥 거기에 심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움죽거리지 않죠, 비교한다면. 생산처에 자동적으로 번호 없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면 넝마전은 넝마, 무쇠전은 무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전부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줄줄이 줄줄이 붙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심봉에다가 생각하는 걸 좋게 생각해서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아가서 나한테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드려도 모르신다면 이건 큰일이죠. 자기가 자기를 믿고 생산을 해내는 데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마음을 잘 쓰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이 조금만 남이 억울한 소리를 해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탓으로 돌리질 않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착을 두게 되고, 욕심을 두게 되는 건 내가 생각 한번 잘못한 까닭입니다. 내 앞에 닥치는 거 닥치는 것대로 갖게 되면 갖게 되는 거고, 가진 것 내버릴 필요도 없고 끌어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욕심 부리지 말랬다고 재산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착을 두지 말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관리인이에요. 잘 쓸 수 있는 관리인입니다. 마음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또 생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각을 잘하면 말도 잘하게 되고 행도 잘하게 되지마는,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행과 말이 잘못 나갑니다.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건 알면서 받고, 몰라서 지키지 못하고 행을 저지르는 것은 모르고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받는 일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억울하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업보가 많아서 이러느냐?'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어저께 없는 오늘은 없죠. 그럼으로써 내가 하지 않은 게 어디 내 앞에 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생산처!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앞에 말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만 가지 생산을 할 수 있다, 닥치는 대로 생각을 잘해서 놓는다면 스스로 아주 훌륭하게 만 가지 생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자연법에 의해서 아주 출중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하는 속담의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깨달으면 독 안도 없고, 나올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날, 어느 날 할 것 없이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천 년 전에 그렇게 했고 단군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주인공을 타파 못한다면, 자기 내공을 타파 못한다면 과거심(過去心) · 현재심(現在心) · 미래심(未來心)의 삼세심(三世心) 내공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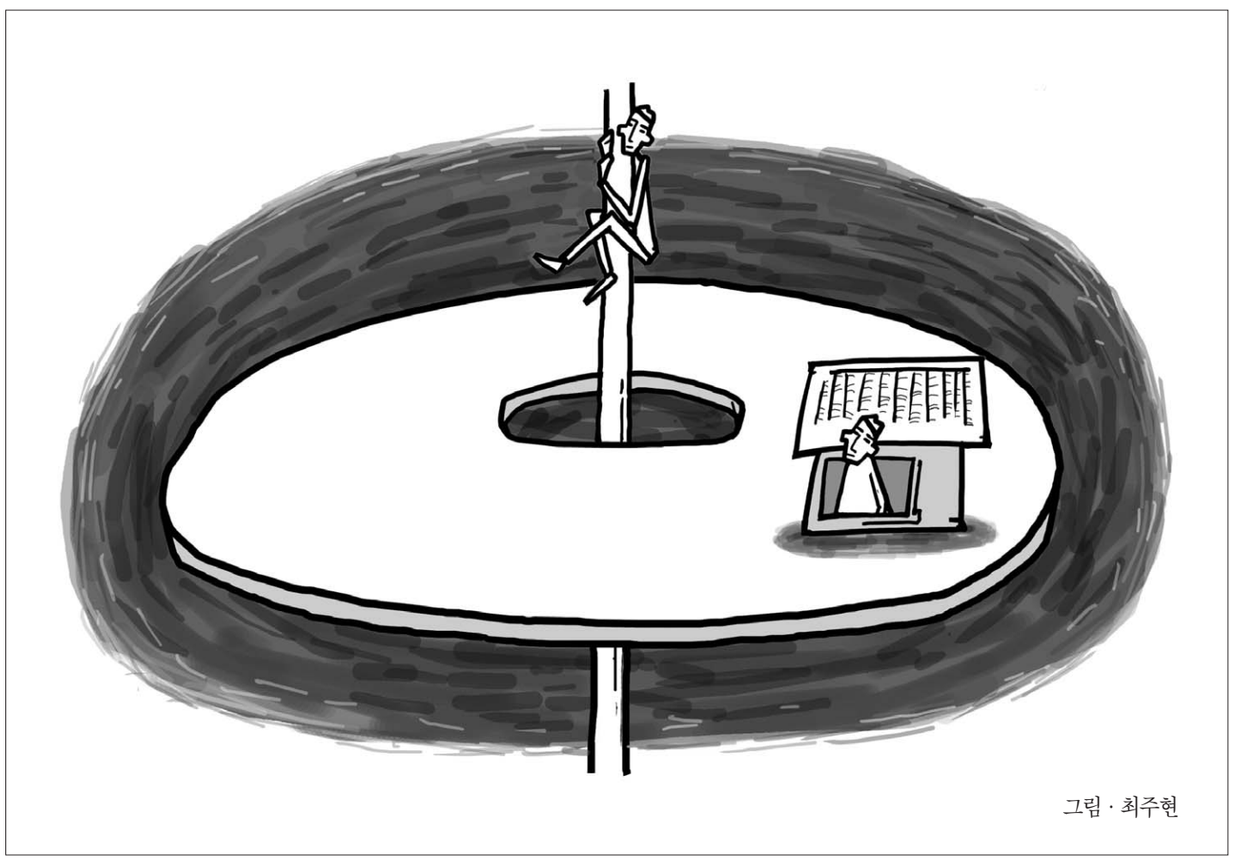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008학년도 제1기생
육효학 전문가 과정
동양문화의 중심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육효학의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를 모십니다.

모 집 안 내

지원자격	○ 역학분야 3년 이상 연구자 ○ 저명인사 및 교수추천 자 ○ 전문상담사 및 교육강사 희망자
모집정원	30명 (선착순 마감)
접수기간	2008년 3월 7일까지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이력서,반명함판 사진3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교육기간 : 2008년 3월 11일 ~ 6월 24일 (16주)
* 1학기 16주, 1년 2학기제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교 수 진 : 한중수 / 유방현 / 유인수 / 노재환
및 동방대학원대학교 전공 교수진
◆교육내용 : 육십사괘 해석과 적용 / 육효 전문용어 해석과 적용
천금부 및 쇄금부 / 십팔문답 / 구재점 / 가출점 / 시험점
매매점 / 질병점 / 소송점 / 하지장 / 내정법
◆문 의 처 :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주임교수 유방현 011-9902-4640

※졸업 후 특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서',' 육효학 지도가 자격증'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육효학회 정회원 자격부여
-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학술위원 위촉 및 학술위원증 수여
- 성적우수자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로 위촉

육효학 전문가를 위한 공개무료특강
◇일시 : 2008년 2월 24일(일) 오후 1시
◇장소 : 동방대학원대학교 4층 대강당

동방대학원대학교문화교육원
문의전화 (02)953-3500,(02)745-8053

2008학년도 제4기생
명리학 최고지도자 과정
東洋文化의 중심 東方大學院大學校에서
命理學의 未來를 열어나갈 人材를 모십니다.

모 집 안 내

지원자격	○ 명리학 전문가 및 최고지도자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분 ○ 전문 명리학 상담사 희망자 ○ 전문교육강사 희망자
모집정원	50명 (선착순 마감)
접수기간	2008년 2월 29일까지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이력서, 반명함판 사진 3매

『최고지도자로 다듬어가는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등불이 될 것이며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명성 뒤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교육기간 : 2008년 3월 2일 ~ 6월 15일 (16주)
* 1학기 16주, 1년 2학기제
◆교육시간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7시
◆교 수 진 : 한중수 / 최인영 / 노재환 / 박청화 / 유방현
및 동방대학원대학교 전공 교수진
◆교육내용 : 명리학 기본이론 / 조후강론 실전풀이/ 성명학 연구
명리학 실전해설 / 육효 실전풀이 /풍수지리학 기초이론
격국용신 실전 풀이 / 자미두수 실전풀이 / 인상학연구
타로이론 및 실습/ 명리 통변 기법 / 서양천문해석
◆문 의 처 :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주임교수 유방현 011-9902-4640

※졸업 후 특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졸업증서',' 명리학교육강사' 자격증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명리학회 정회원 자격부여
-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로 위촉

명리학 교육강사희망자를 위한 공개무료특강
◇일시 : 2008년 2월 17일(일) 오후 1시
◇장소 : 동방대학원대학교 4층 대강당

동방대학원대학교문화교육원
문의전화 (02)953-3500,(02)745-8053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인의 희망 KBS (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 출연
SBS스페셜 (0.2평의 기적) 출연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착불)

오! 쌀스연꽃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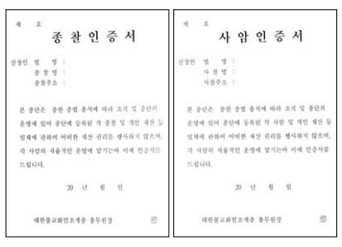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17면에서 계속

을 타파 못합니다. 삼세심의 내공을 타파 못한다면 사공법을 몰라. 사공법을 모른다면 원심력을 기르지 못해서 원통자활을 못해. 이것이 바로 자기한테 부(父)가 있고, 자기한테 스승이 있고, 자기한테 부처가 있고, 자기한테 법신(法身)이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바깥에서 콩싹이 바깥에서 콩씨 찾듯이 그렇게 찾는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백 년을 가도 안되고 천 년을 가도 안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왜 걱정하게 만드느냐는 얘깁니다. 자식이 죽든지 살든지 가든지 오든지 우리는 또 교육을 받음으로써 좋고 그른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애라도.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다가 습기와 모든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다 평등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놔라. 둘이 아니니까 주인공에 전해진다면 바로 자기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생각을 내면 아비가 돼버리고, 둘이 아닌데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비가 생각했던 마음 그대로 자식이 전달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 살아나오면서 경험을 쌓은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너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구나." 할 때 에너지로 인해서 그냥 넣어주란 얘깁니다. 주인공에 맡겨놔, 잘 끌고 다니라고. 그런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밀어서 그렇게 가게끔 한다면 여러분한테 걱정이 뭐 있겠습니까? 잘되고자 생각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잘된다더라.' 하는 것도 거기다 놓으세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마찬가지야, 죽고 사는 거는. 한울에 매여 있어.

각본대로 이렇게,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여기에 (뒤편의 목탱화를 가리키시며) 중세계도 해놨고 하세계도 해놨지만, 각본대로 여러분이 한 것만치 받아서 지금 나온 거거든. 그러니 그 한 것만치 악과 선 속에서 그냥 허덕이지 말고 그 속에서 활짝 벗어나란 얘깁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믿고 놓고 모르고 아는 거를 다 감사하게 놓고 '거기서밖엔 할 수 없지.' 하고 놓고, 그러고 난 뒤 생각을 잘하시란 얘깁니다. '언짢다' 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절대로 언짢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짢을 게 없습니다. 어저께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오늘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자연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 가지 생산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만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산이 돌아갑니다. 이걸 이해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과거지마는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볼 때에, 체가 있는 몸뚱이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입니다! 또 미래로 돌아간다 하는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본다 하는 것은 초보적인 문제인데도 그거를 몰라서 과거를 묻고 현재를 묻습니다, 여러분이. 또 미래를 묻습니다. 예전에 여기에다 법당을 지을 때에 그런 말을 했죠. 어느 스님께서 "여기에다가 지으면 궁색함을 면할 수 없어서 여기가 좋질 않은데…." 했습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좋고 좋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전 잘되는 거 바라지도 않고 못되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이 자리가 좋을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다면 안 좋겠죠, 뭐." (대중 웃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충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고속도로가 나고, 수원이 앞으로는 큰 도시가 되고, 또 여기도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좋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누가 들으면 아는 소리도 잘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말 못하는 것은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나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만 배우면 건방져지고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하고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진짜 자기가 작용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나빠진 부분을 좋게 할 수 있고 좋아진 걸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지, 보고 듣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미래를 본 거 아닙니까? 미래가 아닐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50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이 안양을 보십시오. 그때 50년 전에 있었다 생각하고 한번 미래로 돌아서 지금을 보십시오.

미래를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앞에 그러한 말을 하면 "그럼 왜 부처님 법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하겠죠.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깨달아서 자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얕게도 해놓고 높게도 해놓을 수 있으니까 높다는 말을 할 수 없고 얕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라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유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높게도 해놓을 수 있고 얕게도 해놓을 수 있는데, '저기는 몇 해 전에 이렇게 왔고 저기는 몇 해 있으면 높고'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도 의심 마시고 믿고 자기 주인공 자체의 근본자리에다 맡기세요.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세상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라. 이 마음을 타파할 때에 삼세의 공한 마음이 탁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 가서 아! 자연적으로 스스로서 마음의 능력이, 샘물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공부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면 어떻게 회사에 가셨겠습니까? 노력이 있지 않고는 내 내공의 타파를 못하며, 삼심 내공의 타파를 못합니다. 이 세상 사공법을 모릅니다. 오심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즉 원심력 말입니다. 원통력을 스스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린 뛰어넘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건 취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등동물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의례의식이나 모든 절차 계율 같은 거는 이미 아시리라고 믿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런 거는 으레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여건도 내가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과 인간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들을 보세요. 천차만별의 짐승들을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 얘기 삼아, 지금 얘기도 됩니다마는 얘기 한마디 할까요? 어느 큰 황새가 날다가 깃을 다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깃을 질질 끌면서 돌 틈으로 들어갔답니다. 돌 틈으로 들어가서 한쪽 구석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큰 구렁이가 있다가 하는 소리가 "당신, 이렇게 만날 줄 몰랐소."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십니까?" 하니까 사실 얘길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었고, 당신은 내 아내였는데 내가 불미스럽게 돈을 훔쳐다 주었고 당신은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당신도 사람의 탈을 잃고 이렇게 황새가 됐으니 참 미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람으로 화현을 하려면 소로 태어나야 사람이 될 수 있소." 하면서 구렁이가 얘길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으로 지금이라도 태어날 수 있지만 나는 남의 것을 훔쳐오고 남을 죽였으니 아픔을 주고 모질게 했던 걸 책임지고 다 해결해야만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나는 며칠 안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소로 갈 날이.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 아래 돌 틈 굴에 박쥐란 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박쥐란 놈들이 우글우글한데 거기 박쥐 소굴로 들어갔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박쥐 소굴인지 모르고, 그 영혼은 박쥐의 암컷, 수컷 사랑하는 데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박쥐가 될 수밖에. 수만 마리가 우글우글 있으면서 어미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말입니다.

그런 연후에 죽은 뒤에 다시 그 돌 틈 속에 큰 구렁이 부부가 사랑하는 데로 그만 들어갔으니 자기가 구렁이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렁이 어머니가 자기더러 하는 소리가 "나는 어차피 이렇게 돼서 이 굴 안에서 살고 있지만 너를 배고서부터 그 뜻을 알았으니 너는 앞으로 자라면서 조금도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말고 풀뿌리로써 연명하고, 습기로써 연명해라." 하고 가르쳐 주면서 또 말하기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백 년을 여기서 견뎌야 소로 환토할 수 있느니라. 소로 환토를 해가지고도 남의 것 훔친 거 일하면서 다 갚아야 된다. 그래야 인간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 구렁이 어머니가 구렁이 자식한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까지 그렇게 지키고 있노라고 얘기를 황새에게 했어요. 황새가 그 소릴 주욱 듣더니만 그 소릴 듣는 순간에 생각이 난 겁니다, 자기 과거 생각이. 그래 "나도 같이 먹었으니 같이 갑시다."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는 참, 그 외양간으로 가서 영령은 허물을 벗고 외양간의 부부 속으로 즉, 말하자면 소 암컷 수컷이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 그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형제로 태어났단 말이야, 둘이. 그러고는 죽는지 사는지도 모를 만큼 열심히 소로서의 일을 하면서 닦아 나갔던 거야. 그 소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닦고 자기 어머니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닦아서 다음 생엔 사람이 돼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착하게 세상을 살면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거듭거듭 거쳐 오면서 우리 인간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에게 접근 안 하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금방 뭐가 되고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박쥐였을 땐 현재고 구렁이였을 때는 미래죠? 그런데 구렁이가 또 과거가 되고 소가 현재가 되고요. 또 소가 과거가 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게 현실이겠죠. 한 찰나입니다. 몸을 바꿔 태어나게 하는 거는 한 찰나야. 그러니 이 도리를 모른다면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천만 가지 나오는 모든 것이 전자의 과거로부터 미래로 오는 것이니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생각을 좋게 해라 이겁니다. 만 가지 생각을 좋게 하면 만 가지로 좋게 생산돼 나온다. 이것이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잘되고 못되는 거 바라지 않고
좋고 좋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천만 가지 나오는 모든 것이
전자의 과거로부터 미래로 오는 것이니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생각을 좋게 하라!

※위 법문은 1988년 2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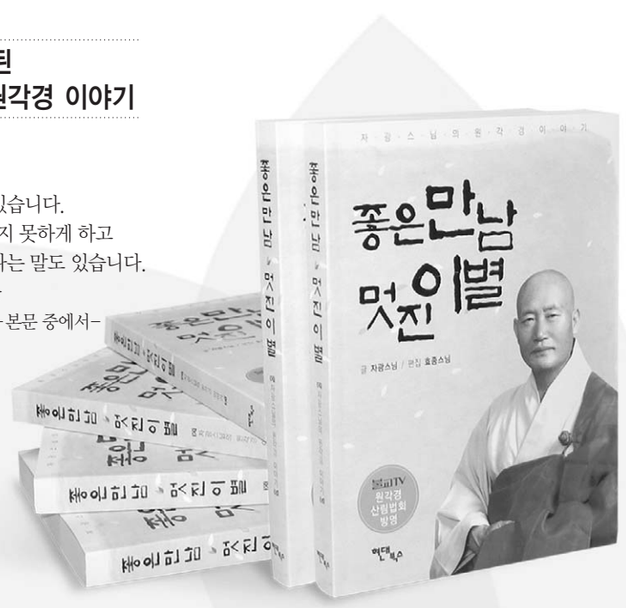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글 자광스님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희양산 봉암사 주지 · 前) 운달산 김룡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회주 · 현재 문경불교대학 학장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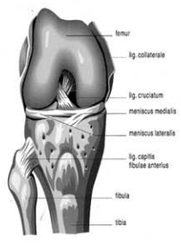
현대북스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ㅡ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불자 세상보기

황 명 찬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네트워크사회와 보살

처음 PC가 등장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사무실에서는 우선 몇 사람에게 PC 사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는 사무실마다 몇 대 정도만 허용됐습니다. 가격이 비싸기도 했고 사용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들 간에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도 다양화되었습니다. 단순한 계산기에서 의사통신의 수단이 되고 오락의 도구가 되고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전달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업적 거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발전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모두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하나의 거대한 망으로 조직된 사이버공간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네트워크 사회가 출현함으로써 우리는 누구도 그 망에서 고립되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사건이 터졌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은 미국에 국한하여 우리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융사건의 충격파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증권시장은 그 충격파로 요동을 치고 일제히 폭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나비효과'는 기상시스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뉴욕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이른바 '나비효과'는 금융시스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사건과 세계적 주가폭락은 금융시스템의 '나비효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의 사이버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2500여 년 전에 <화엄경>에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법계연기라고 하며 인드라망으로 비유하여 말합니다.

인드라망은 거대한 그물인데 그 그물의 코마다 밝은 보석이 달렸습니다. 그 보석은 서로 서로 비추어 한 보석 속에 여러 보석의 모습이 비치고 여러 보석의 모습과도 다른 한 보석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것을 상즉상입(相卽相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그것이 바로 다중일(one in many)로 그 한 사람이 여러 친구들로부터 동시에 이메일을 받으면 그것이 일중다(many in one)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람의 의식이 당연히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고립된 시대에 가졌던 독자적이며 독립적인 의식에서 상호의존적이며 상호협력적인 마인드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독자적 자아(autonomous self)가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로 바뀌어야 망으로 짜인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남의 장벽이 무너지고 종래의 대립과 투쟁의 마인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적 자아관이 끝까지 가면 바로 무아(無我)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나쁜 행동과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곧 망의 연결을 따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 나도 그 해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모두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상극이 아니라 상생(相生), 공생(共生)의 마인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윈윈(win-win)의 생활태도인 것입니다.

태안 기름유출이 일어나자 너도 나도 자원하여 기름제거작업에 봉사하러 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인드인 것입니다. 태안의 고통과 불행은 그곳 주민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로버트 리프턴(R.Lifton)은 프로티안(protean)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바로 보살입니다.

백팔배하며 원망하는 마음 녹여… '감사'의 생활 시작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51 남편과 '共心'이 되길…

남편에 대한 실망

정씨는 결혼 생활 30년이 넘었다. 3년 전 불교에 귀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없이 이혼을 생각했었다.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당시 남편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생활에 대한 책임감도 없다. 자기만 편하면 되고 주관도 없다. 정씨를 속이고 몰래 카드를 쓴다. 다달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카드값에 대해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말만 수없이 할 뿐이다. 한번 믿어보려 하지만 다음 달이면 또 마찬가지다. 말을 생각없이 함부로 하고 정씨의 친정에 대해서 타당성도 없는 비난을 하곤 한다. 시어머니 말씀만 듣고 정씨를 몰아세운다.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은 정씨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였다. 언제 헤어질까를 생각하곤 했었다. 끈질긴 인연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용서라는 말은 떠올리기도 싫었다.

나이 오십이 넘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이대로 죽으면 뭐가 남는가 싶었다. 그러다 절에 가게 되었다.

변하는 마음

스님이 참선 공부반에서 숙제를 내 주었다. "모든 사람의 근본은 부처입니다. 상대방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부처의 모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대하십시오." 정씨는 혼란스러웠다. 저렇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남편도 근본이 부처라니.

법문을 들으며 여러 달이 지나면서 정씨가 조금은 이해하게 된 점이 있다. 정씨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해서 원망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입장이고 남편은 또 자기와 맞지 않는 점 때문에 나에 대해 어렵고 힘든 점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3대 독자라 자기만 위하는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들의 잘못된 견해와 가정불화 속에서 자란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습이 되어 변화하기가 무척 힘이 든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본래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받은 적도 없고 착한 분이라는 말까지 듣는 것을 보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었다.

서서히 남편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는 대신 그 안에 있는 자성 부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아가서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정씨 자신만 더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억울했다.

업을 녹이려는 소망

정씨가 촛불재를 올리며 새해에 바라는 것이 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직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부 사이에 이 업을 녹이는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생에 지금 업을 녹이지 못하면 녹일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신 말씀이 두렵다.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이제 삼년 째 불자인데 올해는 한번 부부간의 업을 녹여보았으면 싶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다니. 부처님 법을 몰랐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혼이혼을 하든가 이대로 죽었겠지요." 정씨는 자신에게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다준 부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낀다고 한다.

오늘도 아침에 백팔배를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녹이려고 한다. 힘들 때는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려 독송한다.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하며 나투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의 길을 걷느니라."

이제 더 이상은 '몰라서' 화만 내던 자신이 아니다. 마음으로 업을 녹이는 관법을 알게 되었다는 감사함으로 눈물을 닦는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종교계 납세' 주장의 앞과 뒤

종교계도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온 '종교계 납세' 주장이 MBC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방송은 납세의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 사찰과 교회 등의 편법 운영과 매각 등을 중점 보도했다. 서너 차례의 기획에 의한 연속보도였고 이를 지켜 본 시청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한다는 소식이다.

방송이 납세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들춰내는 과정에서 사찰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민망스러울 만치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민망스러운 일들이란 것은 종교계가 정도를 걷지 않기 때문에 들춰지는 것이다. 종교계가 비과세 대상일 수 있는 명분은 그 존재의 목적이 충분히 공익적이기 때문으로 압축된다. 종교계가 갖는 공익성은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범위는 물론 민족의 정신사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계가 본래의 존립목적에 충실하다면 납세에 대한 주장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종교적 현실은 다수의 성실성이 일부의 불성실에 덮여 매도되고 있다. 종교계는 비과세 대상이 분명하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을 때 '납세의 의무'는 당연히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투명한 사찰 운영, 불교계가 늘 외치는 말이다. 공익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찰운영과 인력 및 재정 관리에 대한 전형(典型)이 종단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복지계의 도약에 박수를

불교 복지계에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의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이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품질경영 시스템(ISO 9001/2000) 인증을 받았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거창군으로부터 '삶의 쉼터' 운영을 수탁받았다.

원각선원의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획득은 불교계의 복지시업이 질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부산 두송종합복지관과 상락정, 남해 화방동산 등 복지법인들이 ISO 인증을 받아 국제기준의 표준화 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불교계 복지기관들이 전문화된 시스템 속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제기준을 충족시킨 복지법인들이 늘어남으로써 불교계의 복지수준 향상에 촉매역할을 할 것이란 데 기대를 모으는 것이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삶의 쉼터' 수탁으로 모두 110개의 기관을 거느리는 대형 복지재단의 면모를 보였다. 1995년 설립된 재단이 그간 얼마나 열심히 뛰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일단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불교계의 사회복지 불사는 도약의 기반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각 종단의 복지재단과 개별사찰이 운영하는 재단들이 나름대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정착시키며 불교복지의 마당을 넓혀 온 덕분이다. 불교계의 복지 불사 보다 합리적이고 탄탄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 하길 응원해 마지않는다.

탈 종 공 고

●사 찰 명 : **성 불 암**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93-1번지
●대 표 자 : 도신(지왕연)

●사 찰 명 : **광 룡 사**
●주 소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양1리 161-4
●대 표 자 : 혜광(이종필)

●사 찰 명 : **극락정사**
●주 소 : 경북 밀양시 내이동 923-1번지
●대 표 자 : 혜인(김외조)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삼사순례 및 정월방생

본 용연사는 태조왕건의 기도처로 알려져오다 중창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는 도량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이르길 왕건이 개성으로 진군할 당시 몸이 쇠약하여 이곳 서흥사지에 머물러 기도한 곳입니다. 도량앞엔 800만평의 호수가 있어 예로부터 방생터로 이름난 곳이며 교통의 편리성으로 불편없는 용왕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20분내에 좌불상 각원사와 보탑사, 성불사, 광덕사로 삼사순례의 최적지입니다

안 내
- 방생터내 버스 100대 동시 주차가능
- 도량내 버스 20대 주차가능
- 사전예약시 무료공양 (별도공양비없음) 일주일전 예약
- 방생터내 상과향로촛대 설치, 스님좌복구비
- 외래어종방생금지
- 독립기념관 무료입장

■ **예약전화**
041)554-8080

■ **오시는 길(방생터)**
경부선 목천 TG → 독립기념관 → 용연저수지 대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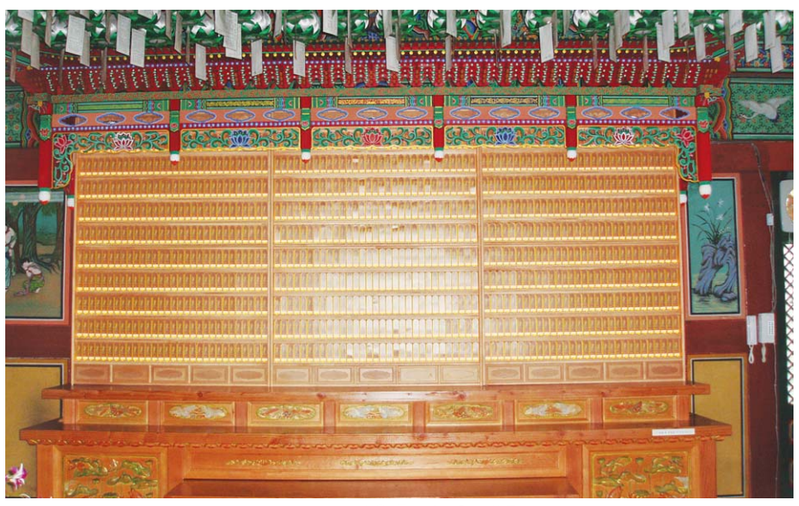
태조산 서흥사지 용연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240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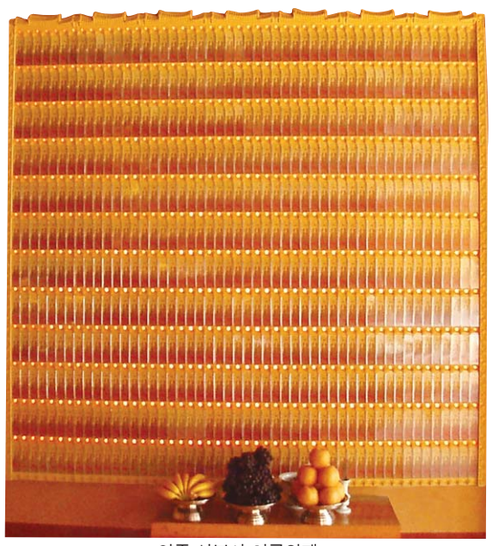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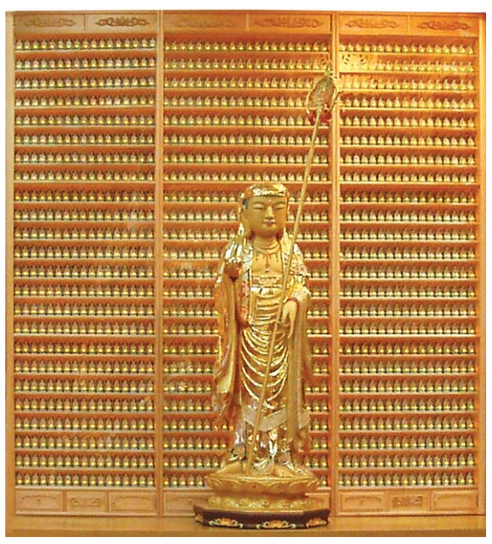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양주 석본사 영구위패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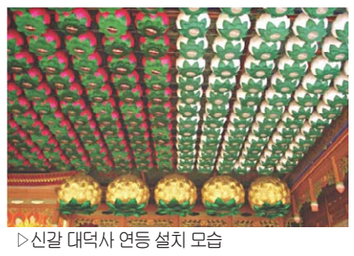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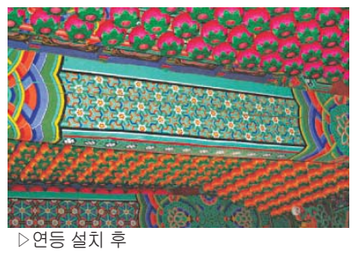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外

불교예술대학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혜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불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고자 하는 불자들의 좋은 교육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범패 및 작법무,
사물다루는 법 등 전반교육

□ 원서교부 :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정규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